

声 明

本电子书由民族出版社数字出版，相关权利归民族出版社拥有。读者、著作权人和（或）依法可以行使著作权的权利人如有疑问，请与民族出版社联系：

地址：北京安外和平里北街 14 号

邮编：100013

电话：010-64212794

传真：010-64212794

民族出版社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를 평함

민족출판사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를 평함

민족출판사

머 리 말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평이 지시하여 조작한것으로서 거기에는 1975년도에 한 등소평의 일련의 강화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있다. 《총적 강령》은 자본주의를 복벽하기 위한 등소평의 정치적 선언이다. 《총적 강령》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을 대대적으로 팔아먹으며 생산력유일론을 불어대면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반대하며 당의 기본로선을 뜯어고침으로써 그 예봉을 위대한 명수 모주석께 돌리고 모주석을 위수로 하는 당중앙에 돌렸다. 등소평은 이 글을 무산계급을 향해 진공하는 한《주먹》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주먹》은 《매리기》도전에 잡히여서 번안, 복벽하는 그자의 최종으로 되었다. 오늘, 이 반면적 교재를 대중들앞에 내놓는다. 동시에 비판하는데 참고로 제공하기 위하여 몇편의 글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출판할 때 원작자들이 개별적인 곳에 문자상의 수정을 가하였다.

북경대학-청화대학대비판조

1976년 7월

목 차

자본주의복벽을 위한 총적 강령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를 분석함……………정 월 (1)

번안, 복벽의 자백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
평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한 글 한편을
평함
……………북경대학-칭화대학대비판조 (28)

번안, 복벽의 철증
——등소평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한 글
한편을 분석함
……………로녕대학대비판조 (45)

[부록]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59)

자본주의복벽을 위한 총적 강령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를 분석함

정 월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위대한 투쟁은 지금 승리적으로 발전하고있다.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평이 내놓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은 모주석과 전당, 전군, 전국인민의 심각한 비판을 받고있다. 모주석께서는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치않은 말이다. 안정과 단결을 도모한다고 하여 계급투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은 기본고리이고 그외의것은 모두가 거기에 따르는것이다.》라고 지적하시였다. 모주석의 이 지시는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의 반동적 실질——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부정하며 당의

기본로선을 부정하며 무산계급전정을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복벽하려는——을 근본적인 면으로부터 명백히 지적하였다.

소수사람들은 이전에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은 《제기법》문제일 따름이라고 인정하였었다. 그러면 아래에서 등소평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해낸 글을 보기로 하자.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아래에서는 《총적 강령》이라고 약칭함)라는 표제로 된 그 글은, 등소평이 내놓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이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복벽하기 위한 강령이라는것을 더욱 로골적인 말로 철저히 폭로하였다.

1

《총적 강령》은 첫머리에 금후 25년동안에 《네가지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을 당의 분투목표로 제기하고나서 인차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다. 그 글은 《세가지 지시》는 《현시기에 있어서 전당, 전군 및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일뿐만아니라 금후 25년동안의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 투쟁 과정에 있어서의 공작의 총적 강령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괄은 다음과 같은것, 즉 등소평이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내놓은것은 전'적으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할데 관한 모주석의 지시에 대항해나서서 우리 당의 기본강령과 기본로선을 부정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첨예하게 보여주고있다.

금후의 25년을 포함한 사회주의 전반 력사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전당, 전국인민의 근본적 임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 당의 《장정》《제1장 총강》에 다음과 같이 명백히 규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의 기본강령은 자산계급과 모든 착취계급을 철저히 뒤엎고 무산계급전정으로 자산계급전정을 대체하며 사회주의로 자본주의를 전승하는것이다. 당의 최종목적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이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주석께서는 사회주의 전반 력사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기본로선을 제기하시였다. 그 기본로선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사회는 상당히 긴 력사적 계단이다. 사회주의라는 이 력사적 계단에는 의연히 계급,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갈래 길간의 투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복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

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급모순과 계급투쟁 문제를 정확히 리해하고 처리하며 적아모순과 인민내 부모순을 정확히 구별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사회주의국가는 그의 반면으로 나아가게 되고 변질하게 될 것이며 복벽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해마다 말하고 달마다 말하고 날마다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비교적 명석한 인식이 있도록 하며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금후의 25년을 포함한 사회주의 전반 력사시기에 있어서 우리 전당, 전국인민의 근본적인 임무는 오직 우리 당의 기본강령을 실현하며 우리 당의 기본로선을 관철집행하기 위하여 분투하는것이며 다른것일수는 없다. 우리는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발전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경제를 두개 계단으로 나누어 발전시켜 본세기내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전면적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하는가 실현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당의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완성하여야 할 임무의 하나일 따름이다. 그것이 웅위로운 임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의 근본적인 임무는 아니며 우리 당의 임무전체인것은 더구나 아니다. 《네가

지 현대화》는 본래 국민경제발전임무의 계획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총적 강령》은 《네가지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지금과 금후 25년동안의 각항 공작의 큰 전제조건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각항 공작이 이 전제조건을 에워싸고 진행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등소평에게 있어서는 지금과 금후의 25년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전반력사시기에 있어서의 유일한 임무는 생산건설을 하는 것이며 계급투쟁이니, 무산계급혁명이니, 무산계급전정이니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기본강령을 철저히 부정하였으며 우리 전당, 전국인민의 근본적인 임무와 전진방향을 철저히 뜯어고쳤다.

《총적 강령》은 계급투쟁을 론하지 않으며 사회주의혁명을 론하지 않는 이 큰 전제조건을 내놓은 다음에 말머리를 돌려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하는》것은 지금뿐만아니라 금후를 포함한, 금후 25년동안에 있어서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이니 뭐니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적 강령》은 황당하게도 무산계급전정의 리론문제 등에 관한 모주석의 중요한 지시들을 다만 《네가지 현대화》의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뜯어고쳤다. 이것은 모주석의 지시에 대한 철두철미 외곡인 것이다. 질충주의와 궤변술에 매달

리는자들은 변증법을 반대하며 변증법적 논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등소평과 그자의 《총적 강령》은 형식논리마저 지키지 않고 추리도 없이 그저 《갈라놓을수 없는 통일적 정체》라는 구실을 달아가지고 억지로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만들어내었으며 또 그것을 인차 금후 25년동안에 있어서의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때 남에게 강요하는것이 아닌가? 등소평은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부정하고 당의 기본로선을 부정하고 모주석의 혁명로선에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모주석의 지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수정주의강령을 조작해냈다.

《총적 강령》이란 이 글은 첫머리로부터 소위 《네가지 현대화》의 실현으로 시작되었으며 또 《네가지 현대화》의 실현으로 끝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금후의(금후의 25년동안을 포함하여) 력사적 로정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나라는 지금 모주석의 무산계급혁명로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며 더욱 룡성발전하는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며 점차 공산주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수정

주의를 실시하여 복벽, 후퇴하며 쓰러진 사회제국주의가 걸은 길로 나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역사적 발전시기에 처하여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금후 몇십년동안은 이 두갈래 길간, 두가지 전도간에 치열한 투쟁이 진행될 시기인것이다.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첫째전도를 실현하며 둘째전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의 기본로선은 바로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며 무산계급과 혁명적 인민의 생명선이다. 그러므로 모주석께서는 **《계급과 계급투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당의 기본로선에 대하여 **《반드시 해마다 말하고 달마다 말하고 날마다 말하여야 한다.》**고 재삼 지적하시였다. 등소평이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으로 당의 기본로선을 대체하고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부정하는 이상 그자는 둘째전도로 나아가려 하며 첫째전도를 반대하는것이며 그자의 소위 **《비가지 현대화》**의 실현은 사실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복벽하기 위한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 수정주의로선에 대하여 전당, 전군 및 전국인민은 더 말할것없이 날카롭게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에 실로 무산계급전정의 이론을 학습할때 관한 문제가 포괄되어있는가? 포괄되어있다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총적 강령》이 무산계급전정의 이론에 관한 모주석의 지시를 여하히 외곡하고 반대하였는가를 보기만 하면 수정주의자들이 어떤 수법에 매달리고있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는것이다.

제작년말에 모주석께서는 이론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지시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레닌은 무엇때문에 자산계급에 대하여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가, 이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문제를 똑똑히 알지 못하면 수정주의로 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국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적으로 말하여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에 속한다. 해방전에는 자본주의와 비슷하였다. 지금은 아직 8급공자제를 실시하며 로동에 따라 분배하며 화폐에 의한 교환을 진행하고있는데 이런 것들은 낡은 사회와 별로 차이가 없다. 다른것이 라면 소유제가 변한 그것이다.》 모주석께서는 다

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실시되고있는것은 상품제도이며 공자제도도 불평등한바 8급공자제가 있는것 등등이다. 이것은 오직 무산계급전정하에서 제한할수 있을뿐이다. 그러므로 립표따위가 올라앉는다면 매우 쉽게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할수 있다.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저작을 많이 보아야 한다.》 모주석의 이러한 지시들의 주요한 내용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데 있어서 자산계급적 법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것이며 무산계급전정하에서 상층건축과 경제기초 면에서의 계속혁명을 할데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일층 명백히 밝혀준것이다. 그런데 《총적 강령》은 리론문제에 관한 지시를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하였는가? 《총적 강령》은 리론문제에 관한 모주석의 지시의 주요한 내용, 즉 자산계급적 법권을 제한할데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도의시하였으며 지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총적 강령》은 새로운 자산계급이 산생하는 지반이며 조건인 자산계급적 법권에 관한 문제, 주요한 위험은 수정주의라는 문제, 당내의 두갈래 로선간의 투쟁에 관한 문제,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에 관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뚜렷히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른바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

다.》는것은 전'적으로 리론문제에 관한 모주석의 지시를 외곡하고 취소하며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리론을 외곡하고 취소하기 위한것이다.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리론의 실제내용을 취소하려는 이것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의 자산계급적 본질을 표명하여준다. 모주석께서는 최근에 《사회주의혁명이 자기에게 미치게 되니 합작화를 할 때 당내에 반대하여나선 사람이 있었고 자산계급적 법권을 비판하는데 대하여서도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혁명을 하면서 자산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있다. 바로 공산당내부에 있는데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그것이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는 의연히 그 길로 나아가고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시였다. 모주석의 이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은 등소평이 범한 로선착오와 그자가 일으킨 우경번안풍의 사상적 근원과 계급적 근원에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등소평이 바로 사회주의혁명이 자기에게 미치는것을 두려워하며 저들이 즐기는 자산계급적 법권을 제한하는것을 두려워하며 저들의 자산계급적 럽장과 세계관을 건드리는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자는 당내외자산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을 급급히 내놓음으로써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반대하며 리론문제에 관한 모주적의 지시를 외곡하고 뜯어고치며 계급투쟁식별론을 고취하였다. 《공산당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나 실제상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고있는 그런자들은 맑스주의의 혁명적 예봉앞에서 자기 계급의 사멸이 두려워 언제나 맑스주의의 혁명적 내용을 백방으로 외곡, 거세하며 그것의 혁명적 예봉을 무디게 함으로써 자산계급의 수요에 적응되게 하려 한다. 등소평과 그자의 《총적 강령》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아니다.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부정하고 계급투쟁식별론을 고취하는자들은 종래로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투쟁을 《식별》하려 하였을뿐, 무산계급에 대한 자산계급의 진공은 《식별》한적이 없었다. 《총적 강령》이 계급투쟁을 반대한 동시에 기세사납게 무산계급을 진공한 사실은 계급투쟁의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의 기본적 리론과 기본적 실천이 우리에게 알려주다싶이 사회주의 전반 력사계단에 있어서의 주요한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며 주요한 위험은 수정주의이며 혁명의

대상은 자산계급이고 중점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인 것이다. 그런데 《총적 강령》은 어떻게 말하였는가? 《총적 강령》은 극《좌》적인 것을 반대하여야 한다는 기발을 들고나와 당면의 주요한 문제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 립표의 의발을 계승하여 언제나 우리의 혁명적 구호를 가져다가 그것을 외곡하고 토막내며》《당의 훌륭한 간부와 선진적인 모범인물들을 내려앉힌다.》느니 뭐니 하였으며 지어는 《이런 투쟁은 바로 당면 두개 계급간, 두갈래 길간, 두갈래 로선간에 진행되는 투쟁의 집중적 표현이다.》라고 말하였다.

《총적 강령》은 이 대목에다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러 그 계급적 내용을 덮어감추었다. 그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두고 한 말인가? 아니다. 《총적 강령》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라는 이 개념을 마치 아Q가 자기 머리에 난 송터에 대하여 자기가 말하지 않을뿐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것도 싫어하듯이 대하였다. 그렇다면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친구자산계급분자를 두고 한 말인가?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총적 강령》은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

적 원썩들》이라는 이 개념속에 이러한 분자들이 내포되지 않았다는것을 명확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에 있어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전지하는것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이 《갈라놓을수 없는 통일적 정체》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말한 이른바 《혁명적 구호를 토막내는》 《계급적 원썩들》이란 바로 모주석의 무산계급혁명로선을 전지하는 중국공산당인을 두고 하는 말이며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전지하는 맑스주의자를 두고 하는 말인것이다. 그자들은 자산계급의 반동적 립장에 서서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전정을 전지하고있는 모든 혁명적인 사람들을 《계급적 원썩》라고 선포하였다. 그자들은 문자로 이렇게 썼을뿐아니라 또한 그대로 실천하였던것이다. 그자들은 립표의 극우적인 수정주의로선을 극《좌》적인것으로 고침으로써 《립표의 의발을 계승하여》라는따위의 말을 빌어 수정주의, 즉 우경기회주의를 비판하는 모든 혁명적인 민을 공격하고 문화대혁명운동과 립표와 공구를 비판하는 운동을 공격하고 류소기, 립표의 수정주의로선을 보배로 좃출렸다. 《립표의 의발을 계승하였다.》(류소기의 의발은 전혀 계승하지 않았다!)느니, 《우리의 혁명적 구호를 가져다가 그것

을 의곡하고 토막낸다.»느니 뭐니 하는 호풍식의 말들은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 분자, 친구자산계급분자 그리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와 문화대혁명을 번안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해 역칭산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해될수 있는 말이며 그들이 즐겨하는 마음속의 말인것이다.

《총적 강령》은 또 계급투쟁, 로선투쟁을 공격하면서 《당의 훌륭한 간부와 선진적인 모범인물들을 내려앉힌다.»느니 뭐니 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날조중상인것이다. 등소평은 《로공인이거나 경험있는 간부들에 대하여 정책락실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마다 흔히 이 부분의 사람들을 타격하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총적 강령》은 이 말을 베껴냈다. 《운동을 할 때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당이 진행한 력차의 중대한 로선투쟁을 포괄하였으며 따라서 력차의 중대한 로선투쟁을 죄다 말살하였다. 물론, 진득수, 리립삼, 구추백, 라장룡, 왕명, 장국도를 비판한데로부터 고강, 팽덕회, 류소기, 림표를 비판한데 이르기까지의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모두 경험있는 오랜 간부거나 로공인들을 《타격》하였으며 《당의 훌륭한 간부와 선진적인 모범인물들을 내려앉혔다.》는 말인가? 이것이 그 래 모주석

의 령도밑에 진행한, 문화대혁명을 포괄한 우리 당의 력사의 정치운동에 대한 외곡과 중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예봉을 모주석과 모주석의 무산계급혁명로선에 돌린 《총적 강령》의 반동적 정체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타격》하게 되는데 결코 경험있는 로간부나 로공인들을 《흔히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로》수정주의로선의 두목과 그자들이 실시한 착오적 로선을 《타격》하는 것이다. 만일 그자들의 착오적 로선과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발전할수 없으며 전국인민을 이끌고 민주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 승리적으로 들어설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공산주의에 계속 전진할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마다》 수정주의로선을 《타격》한 까닭에 등소평은 비감에 싸여 그것을 위해 번안하려 하며 우리 당의 력사를 전도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등소평은 문화대혁명을 번안하고 역칭산하려 하였으며 자기의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리용하여 각 령역에서 아주 발광적으로 복벽활동을 감행하였다. 그자는 《정돈》하여야 한다고 재삼 고아대였다. 어떻게 《정돈》하려 하였는가? 《총적 강령》은 《세가지 지시

를 기본고리로 하여》《각 부문의 공작을 정돈하여야 한다. 공업도 정돈해야 하며 농업도 정돈해야 하며 교통운수업도 정돈해야 하며 재정무역도 정돈해야 하며 과학기술도 정돈해야 하며 문화, 교육, 위생도 정돈해야 하며 문학예술도 정돈해야 하며 군대도 정돈해야 하며 당도 정돈해야 한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엄청나게도 9개 대《정돈》인것이다! 경제기초로부터 상층건축에, 당내로부터 당외에,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뭉뚱 문제가 있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정돈》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도 일부 부문에서의 일부 공작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것은 모주석의 혁명로선과 방침정책을 진일보 관철집행함으로써 공작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인것이다. 등소평이 하려는 이러한 전면적 《정돈》이란 어떤것인가? 교육, 과학기술, 문학예술, 위생 등 평역에서의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똑똑히 본바와 같이 그들은 《정돈》을 통하여 문화대혁명을 번안하며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역칭산하며 류소기, 립표의 수정주의로선으로 되돌아가려는것이다. 그자가 전면적으로 《정돈》하려는것은 전면적으로 역칭산하며 전면적으로 자본주의를 복벽하려는것이다.

만일 《총적 강령》에서 말한바와 같은 《수정주

의를 반대한다는 기발을 내들고 수정주의를 실시하며 복벽을 반대한다는 기발을 내들고 복벽 활동을 감행하는》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등소평 및 그자가 고취한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총적 강령》의 자화상에 지나지 않는다.

3

정치와 경제의 관계, 혁명과 생산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총적 강령》은 모주석의 지시를 기탄없이 외곡하고 뜯어고쳤다. 《총적 강령》은 경제령역에서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수정주의적 생산력유일론의 궤도에 끌어넣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 생산자료소유 제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비록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지만 결코 전부 완성된것은 아니다. 이미 사회주의개조를 진행한 부분에도 의연히 개조와 반개조간, 복벽과 반복벽간의 첨예한 투쟁이 존재하고있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면과 분배면에서 아직도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심입하여 진행해야 할 문제가 가로놓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산관

계 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며 상층계급혁명에서의 혁명을 잘해야 한다. 말하자면 계급투쟁이란 이 기본고리를 틀어쥐어야 하며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총적 강령》은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방침을 반대하였으며 따라서 문화대혁명이래 《정치만 강조하고 경제는 강조하지 않으며 혁명만 강조하고 생산은 강조하지 않으며 생산을 틀어쥐고 경제건설을 잘하자는 말만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생산력유일론〉이란 감투를 씌우고 수정주의를 실시한다고 나무린다.》라고 극구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은 수정주의의 생산력유일론을 견지하는 《총적 강령》의 반동적 입장을 폭로한것이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래 광범한 혁명적 군중은 맑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으로 류소기, 림표가 팔아먹은 생산력유일론을 포함한 그자들의 수정주의로선에 대하여 혁명적 대비판을 전개하였다. 이런 대비판은 무산계급이 자본주의복벽을 분쇄하기 위하여 진행한 계급투쟁인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적 강령》이 중상한 《정치만 강조하고 경제는 강조하지 않으며 혁명만 강조하고 생산은 강조하지 않는다.》는것인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생동한 사실들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우리 나라 생산력발전의 강대한 동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정주의로선과 생산력유일론에 대한 인민군중의 비판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대발전을 추진시켜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인민군중이 류소기, 립표따위에게 《수정주의》, 《생산력유일론》이란 《감투》를 씌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전'적으로 옳다! 이 두개 《감투》는 매우 적합하며 벗겨서는 절대 안된다! 레닌은 《자신의 수정주의를 덮어감추기 위하여 수정주의를 부인한다.》고 아주 적절하게 말하였다. 등소평과 그자의 《총적 강령》이 수정주의의 생산력유일론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는것은 바로 류소기와 립표의 의발을 계승하여 반혁명적인 수정주의로선과 생산력유일론을 계속 실시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를 《정치만 강조하고 경제는 강조하지 않으며 혁명만 강조하고 생산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 이것은 완전히 시비를 뒤섞고 흑백을 전도하는 말이다. 물론, 8억 인민이 자기의 힘에 의하여 량식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독립자주, 자력갱생의 국민경제체계를 건립함으로써 제국주의와 사회제국주의의 경제적 봉쇄와 공갈을 분쇄하였는데 그래도 《경제를 강조하지 않고》 《생산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인민군중이 생산해낸 량식을 먹으며 인민군중이 만든 옷을 입고 인민

군중이 지은 집에 들어앉아서 이른바 《경제를 강조하지 않는다.》느니, 《생산을 강조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이따위 허튼소리를 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당과 공농업생산제1선에서 장기적으로 싸우고 있는 광범한 군중 및 간부들에 대한 파렴치한 비방인 것이다!

맑스주의와 수정주의적 생산력유일론간의 분기는 생산을 틀어쥐는가 틀어쥐지 않는가, 경제건설을 잘해야 하는가 잘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다. 맑스주의는 종래로 생산력의 발전을 중시하여왔다. 그런데 맑스주의는 또한 종래로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관계 및 그 상층건축의 개혁을 탈리할수 없으며 혁명을 틀어쥐어야만 생산을 촉진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생산관계를 잘 조절하면 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개척해줄수 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다. 사회주의조건하에서는 무산계급정치를 통수로 하고 사람들의 사회주의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한다면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틀림없이 촉진할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유일론은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상층건축과 생산관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하지 않고 생산의 발전을 유일하고도 결정적인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실질인 것이다. 만일 등소평이 고취한바와 같이 생산과 건설에만

물두하면서 계급투쟁과 혁명을 진행하지 않아 수정주의가 집정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복벽하게 된다면 발전한 경제 및 생산, 그리고 《네가지 현대화》는 모두다 무산계급과 노동인민을 압박, 예속화하는데 있어서의 물질적 역량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레닌은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당과 인민에게 **《우리의 주의력과 우리의 실천적 행동의 10분의 9가 모두 이 기본적인 문제 즉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무산계급정권을 확립하고 자산계급이 복벽할 온갖 가능성을 제거하는 문제에 돌려졌으며 또 반드시 돌려져야 한다.》**고 재삼 일깨워주었다.

등소평과 그자의 《총적 강령》은 다른 사람을 《경제를 강조하지 않고》《생산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사코 공격하였는데 그때 그자가 진정으로 사회주의생산에 열중하는가? 아니다! 그자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열중하며 사회주의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생산력을 파괴하는데 열중한다. 그자가 《생산을 잘하여야 한다.》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인것들을 회복하려는것이다. 이 점은 《총적 강령》의 기업관리에 관한 론술에서 매우 똑똑하게 폭로되었다. 《총적 강령》은 생산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규장제도는 더욱더 엄밀해지며 이런 규장제도를 더욱더 엄격히 준수

할것을 요구하는데》《비단 자본주의사회에서와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리할뿐아니라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역시 이리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규장제도의 계급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본질적 구별을 완전히 부정한것이다. 규장제도는 생산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서 선명한 계급성을 띠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부문의 규장제도는 공인계급과 노동인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이며 공인계급과 노동인민은 사회의 주인이다. 우리는 공인계급과 노동인민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규장제도를 건립할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며 또한 공인과 노동인민에 대하여 자산계급전정을 실시하는 《통제하고, 제한하고, 압제하는》 제도를 반대한다. 모주석께서 직접 비준하신 《안강헌법》은 사회주의기업의 규장제도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총적 강령》은 이 점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더욱더 엄밀한》 규장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요란스레 불어대었다. 자본주의경제부문의 규장제도는 확실히 엄밀하고 엄격한바 공인들이 대소변을 보는것마저 시간을 따지는데 만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총적 강령》은 과연 이런 규장제도를 초계급적인, 초시대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비단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룰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이리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자본주의복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공인계급과 노동인민에 대한 전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등소평의 기타 여러가지 언행을 련계시켜본다면 그자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을 내놓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것도 《기본고리》로 간주한것은 《회고양이건 검은고양이건 관계하지 않고》, 제국주의건 맑스주의건 관계하지 않는,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자기의 수정주의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는것을 더욱 똑똑하게 보아낼수 있다.

4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맑스주의적 어구와 절충주의적 수법에 의해 만들어낸것이다. 이것은 허위적이고도 반동적인 수정주의강령이다.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설교한 《총적 강령》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다. 《총적 강령》은 매우 빈약한 이론과 매우 악렬한 수단으로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만들어낸, 논리적 혼란과 사상적 모순에 빠진 잡동사니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의 반동적 실질을 진일보 인식하고 비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얻기 어려운 반면적인 교재이다.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심도있게 비판하는것은 우리들이 맑스주의를 견지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강령은 길게 론술할수도 있고 간단히 개괄할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를 물론하고 어쨌든 그것이 맑스주의인가 아니면 수정주의인가 하는 원칙문제를 포괄하고있으며 무산계급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견지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 문제를 포괄하고있다. 무산계급혁명의 도사들은 종래로 무산계급정치강령의 원칙성과 순결성에 대하여 매우 중시하여왔으며 언제나 기치선명하게 이레저러한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강령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치상 및 사상상에서 그것들을 심도있고도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무산계급혁명사업에 정확한 방

향을 밝혀주었다. 맑스는 《고타강령》을 비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의무를 놓고보더라도 나로서는, 아주 그릇되고 당을 라락시키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강령을 설사 외교적 침묵의 방법으로써도 도저히 승인할수가 없다.》 기회주의자 듀링이 뛰어나와 당의 이론적 기초를 반대하여나섰을 때 엥겔스가 듀링을 비판하려고 하자 맑스는 엥겔스를 견결히 지지하였다. 엥겔스는 결연히 《모든것을 다 제쳐놓고 무리한 듀링을 수습하였다.》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엄숙하고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적 기초문제에 있어서의 착오적인 관점 또는 구호로 하여 맑스주의를 철저히 배반하게 되고 수정주의의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때문이다. 흐루쇼브가 《평화적 과도》라는 수정주의로선을 제출하였을 때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시였다. 《10월혁명이 의연히 호협이 있는가 없는가? 의연히 각국의 모범으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흐루쇼브는 소련 공산당 20차대표대회의 보고에서 의회의 길을 통하여 정권을 얻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10월혁명을 따라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문이 열리자 레닌주의는 기본상 내버

려졌다.》 류소기가 사회주의교육운동가운데서 이른바 《4청과 4불청간의 모순》이라는것을 내놓았을 때 모주석께서는 인차 그것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모순이 주요한 모순이라는것을 부인하며 사회주의사회에 의연히 계급,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것을 부인하는 원칙적 문제라는것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10여년동안의 이 기본적 리론과 기본적 실천을 잇는다면 틀림없이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립표가 수정주의적 리론강령인 《천재론》을 내놓았을 때 모주석께서는 제때에 그것의 반동적인 본질을 적발폭로하시면서 **《영웅이 역사를 창조하였는가 아니면 노예들이 역사를 창조하였는가》** 하는 문제, 사람들의 지식(재능 역시 지식의 범주에 속한다.)은 선천적인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것인가 하는 문제, 유심론적 선행론인가 아니면 유물론적 반영론인가 하는 문제는 두개 계급, 두갈래 로선, 두가지 세계관의 원칙적인 시비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전당은 맑스주의 립장에 서서 립표의 수정주의와 계선을 똑똑히 가를것을 호소하시였다. 오늘 등소평이 내놓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제기법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본강령과 기본로선을 견지하는

가 안하는가에 관련되는 문제이며 무산계급정당을 공고히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복벽하는가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맑스주의를 견지하고 무산계급정당의 이론기초를 보위하며 또 그것을 외곡하고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며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반드시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과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 당과 무산계급의 혁명사업이 틀림없이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붉은기》잡지 1976년 제4기에서)

번안, 복벽의 자백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평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한 글 한편을 평함

북경대학-청화대학대비판조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평이 작년엔 우경
번안풍을 기세사납게 일으킬 때 지시를 내려 《전
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이란 글을 조
작해냈는데 이 《총적 강령》은 《세가지 지시를 기
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금후 25년》동안에 있어서의 《공작의
총적 강령》이라고 극력 설교하였다. 만여자나 되게
늘어놓은 이 대독초는 얻기 어려운 반면적 교재
이며 번안, 복벽의 자백서이다. 이 글을 분석하기
만 하면 그자가 내놓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
로 하여야 한다.》는것은 《제기법이 타당하지 못
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수정주의강령이며 그자

들의 우경번안활동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한것》인것이 아니라 리론이 있고 강령이 있고 조직있게 진행한 음모계계라는것을 알수 있다.

등소평은 이 글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있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그때 그자들은 《이 글이 발표되면 한주먹을 들어 때린것으로 된다.》고 득의양양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어떤 《주먹》이며 도대체 무엇을 때리려는것인가? 오늘에 와서 이미 진상이 똑똑히 밝혀진바와 같이 이 수정주의《주먹》이 때리려 한것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며 모주석의 혁명로선이며 모주석의 혁명로선을 견결히 집행하고있는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다.

이른바 《총적 강령》이란 이 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림표를 비판하고》 《좌경을 반대한다.》는 기발을 내들고 문화대혁명을 공격하였다. 립표가 실시한 로선은 극우적인 수정주의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은 도리어 탄심보를 품고 《극좌》적인 로선이라고 하는 한편 놀랍게도 이른바 《좌》적 《류독》을 《철저히 숙청》하여야만 《안정과 단결의 정치적 국면이 나타날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런자들은 일관적으로 극우적인 립장에서 있기때문에 전반 문화대혁명을 《극좌》적인것으로 보는것이다. 그자들이 이른바 《좌경을 반대한다.》는것은 모주석의 맑스-레닌주의로선을 반대하는

것인 것이다. 그자들이 《림표를 비판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것이 진실이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실질상 사회주의조건하에서 무산계급이 자산계급과 모든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정치대혁명이다. 운동의 중점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들을 투쟁하는 것이다. 모주석께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혁명을 하면서 자산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있다. 바로 공산당내부에 있는데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그것이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는 의연히 그 길로 나아가고있다.》 문화대혁명의 주요한 대상이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반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등소평은 《경험있는 간부들》을 《타격하였다》고 문화대혁명을 중상하였으며 그자가 지시를 내려 조작한 이 글은 《당의 훌륭한 간부들을》 《내려앉혔다》고 더욱 집중적으로 문화대혁명을 공격하였다. 물론, 류소기자 산계급사령부와 립표자산계급사령부를 그래 내려앉히지 말아야 하는가? 당내에 기여들어온 한줌도 못되는 반역자, 특무, 반혁명분자들을 그래 내쫓지 말아야 하는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

아가는 집권파를 그래 폭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문화대혁명에서 광범한 간부들은 심각한 계급투쟁교육과 로선투쟁교육을 받음으로써 착오를 범한 간부들이 구원되었다. 이는 그들이 무산계급전정하에서 계속혁명을 진행하는데 매우 유익한것이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이 글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의 성질, 대상 및 임무에 관한 모주석의 중요한 지시들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투쟁한것이 《극좌》적인 행동이라고 중상하면서 문화대혁명을 악독하게 저주하였으며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들을 위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함으로써 착오를 범하여 군중들의 비평을 받은 간부들을 선동하여 문화대혁명에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등소평이 이른바 《영원히 번안하지 않겠다.》고 한것은 《손을 펴기 위하여 잠시 굴복한다.》는 공맹신도들의 옛기량의 재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또다시 폭로해준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전례없던 위대한 군중운동이다. **《이전의 군중운동치고 이번처럼 광범하고 심도있게 발동된적은 없다.》** 모주석께서는 문화대혁명가운데서 용감히 일떠나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억세게 반란한 억만

군중들의 혁명적 정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였다. 무산계급전정의 력사적 경험은 수정주의의 집정을 방지하려면 소수사람들에만 의거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국인민들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문화대혁명은 바로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한 위대한 실천이다. 등소평은 일관적으로 공구의 《삼지하우》의 유심사관을 전지하면서 공공연히 《공농병에 의거하는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였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은 그자의 의사대로 군중은 맹종하기 쉽고 되는데로 반대하며 《극(좌)적인 말》에 속아넘어갔다고 중상하였다. 그자들에게는 인민군중이 그야말로 무지한 망나니로 보인다. 그자들이 이처럼 문화대혁명에서의 군중운동을 악독하게 공격하는것은 이번 투쟁이 그자들의 요해처를 찔렀고 혁명군중운동의 거대한 위력을 과시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자들이 군중의 대립면에 서서 대다수사람들을 증오하고 군중을 증오하는 이것은 이 당내자산계급귀족나우리들의 반동적 면모를 충분히 폭로하여주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혁명군중운동을 반대한 팽덕회의 유론을 통격하시면서 하신 모주석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큰소리로 권고한다. 《당신들은 레닌이 또 반역자인 블레하노브를 어떻게 비판하였으며 <자본가나우리들과 그의 주구>, <죽어가는 자산계급과 그에 의부한 소자산계급민주파의 그런 주구들>을 어떻게 비판하였는가를 보았는가? 보지 못하였다면 한번 보는것이 어떻가?》

등소평은 지시를 내려 이 글을 조작한 동시에 《문화대혁명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을 죄다 망각하라,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말고 제기하지도 말라.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죄다 망각하였다.》는 론조를 퍼뜨렸다. 말은 몇마디밖에 안되지만 그자가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원한을 가득 품고있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그 말의 뒤에 숨어있는 뜻은 문화대혁명인지 무엇인지 하는것을 전혀 없는 일로 여기면서 이전에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던 그대로 지금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이다. 이른바 《기억력이 나쁘다.》느니 《망각하였다.》느니 뭐니 하는것은 남들을 기만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자의 미친듯한 일련의 활동들은 그자가 오매에도 생각하는것이란 역청산과 복벽을 하려는것이며 무산계급과 혁명적인 민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문화대혁명의 철같은 사실을 번안하지 않고서는 결코 물려서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문화대혁명을 번안하기 위하여 등소평은 편 심보를 품고 《지금 각 부문에 모두 정돈하는 문 제가 나서고있다.》고 제기하였다. 그자가 지시를 내려 조작한 글은 《반드시 이 세가지 지시를 기 본고리로 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래의 풍부한 경험을 총결하여 각항 공작의 구체정책을 제정하고 이 공작의 총적 강령과 각항 정책으로 각 부문의 공 작을 지도하며 각 부문의 공작을 정돈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물론이, 당신들은 지금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으로 문화 대혁명을 《총결》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그 러면 문화대혁명에 대한 당의 9차대회, 10차대회 의 총결은 다 무효라는 말이 아닌가? 《이번 무산 계급문화대혁명은 무산계급전정을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복벽을 방지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완전히 필요한것이며 아주 적시적인것이 다.》라고 하신 모주석의 이 지시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아주 명백한바 당 신들의 그런 수정주의 강령과 로선에 따라 《총결》 한다면 오직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역칭산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리어 《무산계급문화 대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것》 이라고 말하였으니 그야말로 천하없는 웃음거리

가 아니겠는가! 당신들이 각항 정책을 《제정》하고 각 방면의 공작을 《정돈》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모주석께서 우리 당에 제정하여 주신 각항 무산계급정책을 부정하고 그에 대항하려 하며 당신들 자산계급의 면모대로 각 방면의 공작을 개조하고 우리 당과 국가를 개조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은 단숨에 아홉개 방면에서 《정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점》은 당을 정돈하는것이고 《관건》은 령도반즈이라고 하였다. 그자들은 이른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타도하여야 하며 《령도권을 탈환하여야 한다.》고 미친듯이 떠들어댔다. 그자들이 말한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썩들》이란 반동적이고도 특징적인 함의를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모주석의 혁명로선을 견결히 집행하는 무산계급혁명파를 두고 한 말인것이다. 그자들은 수정주의를 실시하는만큼 맑스주의를 견지하며 무산계급전정을 견지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계급적 원썩으로 볼것은 물론이다. 그자들은 음험하고도 악독한 심보를 품고 이른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반역자이며 매국역적인 립표와 련계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은 립표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섭취하여 자기를 더욱 교묘하게 가

장하려고 애쓰»면서도 의연히 《림표의 의발을 계승하여》 《림표의 옛놀음을 그대로 계속하고있다.》고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이런 말들은 바로 그자들의 자화상인것이다.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에서 적발된 수많은 사실들은 류소기, 림표의 수정주의로선의 의발을 진정으로 계승하고 붉은기를 들고 붉은기를 반대하는 옛놀음을 그대로 계속하여 맑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미친듯이 반대하는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등소평자신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그자들이 이처럼 인심을 미혹시키며 혼란을 조성하며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모독하며 무산계급혁명파를 비방하며 공개된 혹은 숨어있는 한층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한 그요해는 우리 당을 분렬하며 군중을 분렬함으로써 무산계급의 권력을 빼앗으려는데 있다.

등소평이 이와 같이 급급하게 문화대혁명을 번안하며 무산계급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인가?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은 이에 대하여 그것은 당의 기본로선을 개변하고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복벽하기 위하여서이다라는 아주 훌륭한 주해를 달았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은 서두를 떼자마자 당의 10기 2중전회와 4기인민대표대회는

금후 25년동안에 우리 나라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데 관한 웅위로운 임무를 제기하였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인차 그자들은 공공연히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금후 25년 동안에 있어서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자들은 당의 10기 2중전회와 4기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뜯어고쳤으며 시종일관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며 금후 25년동안에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외곡하였으며 《25년동안》이라는 말을 슬그머니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에다 붙여놓았다. 그자들은 혁명과 생산과의 관계,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통수와 피통수의 관계를 전도하여 현대화의 실현을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일체를 통솔하는 자리에 놓고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하는》것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계급투쟁이란 이 기본고리가 취소되고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계속혁명의 근본적인 임무가 취소되며 이른바 《현대화》만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생산당》으로, 수정주의당으로 되고 우리 당의 강령도 수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이대로만 한다면 25년도 되지 않아서 전반

중국이 색깔이 변하게 될 것이다.

맑스주의는 총적인 력사발전중에서 생산력과 경제기초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지만 이와 동시에 또 생산력에 대한 생산관계의 반작용, 경제기초에 대한 상층건축의 반작용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낡은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이 생산력과 경제기초의 발전을 저해할 때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의 변혁이 주요한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민주혁명시기에 모주석께서는 《련합정부를 론함》이란 저작에서 일찍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국의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그 실천이 중국인민들속에서 나타내는 작용이 좋은가 나쁜가, 큰가 작은가 하는것은 결국 그것이 중국인민들의 생산력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못 주는가, 그 도움이 큰가 작은가 하는데서 결정되며 생산력을 속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력을 해방시키는가 하는데서 결정된다.》 모주석께서는 계속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침략자를 소멸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농민을 해방하며 현대공업을 발전시키며 독립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통일된 부강한 새 중국을 건립하는 등 이 모든것만이 중국사회의 생산력을 해방할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인민의 환영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모주석께서

는 오직 혁명만이 생산력을 해방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시기에 있어서도 모주석께서는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의 부단한 변혁이 생산력발전에 대하여 추동작용을 논다는것을 줄곧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에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제정하여주시였다. 문화대혁명이래 우리 나라 각항 건설사업이 생기발랄하게 발전하고있는 사실은 이번 대혁명이 우리 나라 사회생산력발전에 있어서 강대한 추동력으로 되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은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극력 공격하며 무산계급정치를 통수로 하는것을 공격하면서 생산력유일론이란 이 썩어빠진 물건을 대대적으로 팔아먹었다. 그자들은 《련합정부를 론함》이란 저작에서 하신 모주석의 그 말씀을 공공연히 외곡하고 또 앞뒤를 잘라버리는 악렬한 수법으로 모주석께서 하신 그 말씀의 뒤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해버렸다. 그자들은 혁명을 집어던지고 생산을 운운하면서 그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간에 생산만 발전시키면 그것이 《진정한 혁명》이며 《정확한 로선》이라고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히

그 《흰고양이요, 검은고양이요》 하는것이다. 그자들의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 강철이 제일 많고 원자탄이 제일 많은 두 초대국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혁명》적이며 제국주의와 사회제국주의의 공제와 략탈을 당하여 경제상에서 잠시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여있는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일 부정확》하며 《제일 비혁명적》인 나라로 되지 않겠는가? 보라, 《맑스주의를 안다고》 자처하는 이자들이 얼마나 황당한가!

역사적 경험은 신로수정주의자들이 늘 경제적 면에서 크게 고아대면서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전정을 반대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등소평은 그자들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생산을 제일 관심하며 생산에 대하여 제일 아는것처럼 가장하고 나서서 마치 자기가 경제공작에 있어서 《전문가》나 《박식가》인체하지만 그것은 사실 생산을 틀어쥔다는 미명하에서 자본주의를 복벽하려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자들은, 일체는 현대화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상층진축의 각 영역에서의 혁명을 극력 반대하는 한편 경제령역에서 완고하게 수정주의로선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방향을 개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자들은 자산계급경제사상을 대대적으로 팔아먹으면서 과학기술지상론, 수정주의규장제도만능론, 개인

물질리익제일론을 설교하였다. 그자들은 이러저러하게 떠벌여냈지만 사람의 인소와 혁명에 대하여서는 운운하지 않고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취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자들은 당의 령도를 반대하고 《전문가에 의하여 공장을 경영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정치통수를 반대하고 리윤통수를 주장하였으며 군중에 의거하며 대대적으로 군중운동을 진행하는것을 반대하고 《통제하고, 제한하고, 압제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중앙의 적극성과 지방의 적극성을 발휘하는것을 반대하고 《계통별전정》을 재차 실시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두다리로 걷는》 방침을 반대하고 편면적으로 대형적이고 현대적인것을 강조하였으며 독립자주와 자력갱생을 반대하고 양노철학과 파행주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의것을 숭배하고 미신하며 매관자산계급의 양노상을 드러내놓고있는 등소평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여 악렬한 후과를 빚어냈다. 만일 그자의 주장대로 해나간다면 우리의 경제건설을 자본주의의 그릇된 길로 끌고갈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나라는 또 다시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되고말것이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란 글이 조작된것은

계급투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으로서 사람들의 의사에 의하여 전이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있다. 제단에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면서 무산계급을 진공하던 등소평은 얼마나 기세등등하였는가! 그자들은 이른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꼭 타도해야 한다는니 자기들은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건강한 신념》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산계급을 한주먹에 때려눕히려 하였다. 그러나 우경번안풍은 한때 득세할수 있었지만 기실 그자들은 매우 취약한것이다. **번안하면 인심을 잃는다.** 진리는 번안복벽하는자들의 손에 쥐여져있지 않다. 그자들은 진리를 제일 무서워하며 진리를 장악한 인민군중을 제일 무서워한다. 《총적강령에 대하여》란 이 기괴한 글이 조작된후 얼마안되어 그자들은 형세가 좋지 못함을 느끼고 심혈을 기울여 재삼 고쳐서 이른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타도해야 한다는따위의 물건들을 건어들어였다. 이 얼마나 피상한 일인가, 《맑스주의를 반대하며》 또 《계급적 원썩》라면서 무엇때문에 갑자기 타도하지 않아도 일없게 되였는가?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건강한 신념》을 가지고있다면서 무엇때문에 갑자기 담이 작아졌는가? 그자들은 이 글을 수개할 때 하고싶

지 않은 말을 몇마디 보태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삭제해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자들은 이렇게 더욱 교활하고 더욱 은폐적인 수단으로써 무산계급을 진공하였다. 그러나 그자들이 이렇게 고친데서 도리어 그자들의 정체가 남김없이 드러나고말았다.

력사상 매차의 대혁명이 있은후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면 흔히 혁명자체가 경과한 시일보다 더 긴 시일이 걸려야 하며 또한 혁명시기와 혁명이후의 매우 긴 과정에는 언제나 번안과 반번안간, 복벽과 반복벽간의 투쟁이 일관되어있다. 모주석께서 친히 발동하시고 령도하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계속혁명의 광활한 길을 개척하였다. 이 혁명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사회주의시기에 있어서 광범한 군중들을 발동하여 자산계급을 혁명하며 특히는 당내의 자산계급을 혁명하려는것이다. 이 혁명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며 무산계급전정을 공고히 하며 자본주의복벽을 방지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극히 보귀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성질과 임무 및 의의에 의하여, 수정주의를 실시하고 복벽후퇴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문화대혁명을 번안하려 한다는 것이 결정된다. 문화대혁명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진정으로 건설하는가 가짜로 건설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계속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는가 아니면 중도에서 그만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목전에 진행되고있는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위대한 투쟁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의 계속이고 심입이며 우리 당과 국가의 운명과 전도에 관계되는 으뜸가는 대사이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7기 2중전회이래 계급과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에 관한 모주석의 일련의 론술들을 진지하게 학습해야 하며 무산계급문화대혁명운동과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운동에 관한 모주석의 일련의 중요한 지시들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시종일관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여 등소평의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주의강령을 집중적으로 적발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하며 모주석의 혁명로선에 대항하는 그자의 수정주의로선을 적발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중천에 올라가 달을 따고 오대양에 내려가 자라를 잡》**는 혁명적 정신을 발양하여 무산계급에 대한 자산계급의 진공을 견결히 분쇄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모주석의 혁명로선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하여야 한다.

(1976년 4월 3일부 《인민일보》에서)

번안, 복벽의 철증

— 등소평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한
글 한편을 분석함

료녕대학대비판조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제일 큰 집권파 등소평은 작년 가을에 우경번안풍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때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아래에서는 《총적 강령에 대하여》라고 약칭함)라는 검은글을 조작해냈다. 그자들은 《이 글을 발표하면 한주먹을 들어 빼린것으로 된다.》고 발광적으로 절규하였다. 아래에서 우리는 만여자에 달하는 이 기괴한 글의 반동적 실질을 분석함으로써 그자들의 이 주먹이 도대체 무엇을 때렸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검은글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계통적으로 팔아먹었으며 악랄한 심보로 《맑스주

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제기하고나서 《평도권을 탈환》하여야 한다고 절규하였다. 이 글의 정치적 주장과 행동구호는 당내외의 자산계급과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우파분자들의 반혁명적 념원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천안문광장에서 일어난 반혁명정치사건가운데서 과연 한줌도 못되는 계급적 원수들이 등소평의 이 수정주의강령의 기치밑에 반혁명폭란을 공개적으로 일으켰다. 그자들은 《진시황》을 반대하며 등소평이 《총리로 되어야 한다》고 하며 《진정한 맑스주의》를 요구한다고 미친듯이 떠들어대면서 예봉을 위대한 령수 모주석과 그리고 모주석을 위수로 하는 당중앙에 돌리고 등소평의 반혁명수정주의로선을 떠받들으로써 등소평을 중국의 나찌로 내세우려 시도하였다. 이런 사실들이 뚜렷히 말하여주다싶이 반당반사회주의적인 이 검은글은 천안문광장반혁명사건의 전주곡인것이다. 이 글은 변안, 복벽의 검은선으로 일관되어있다. 그자들의 이 주먹이 때리려는 목표는 다른것이 아니라 모주석을 위수로 하는 당중앙이며 모주석의 무산계급혁명로선인것이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라는 글은 첫머리부터 《네가지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을 큰 목표, 큰

전제로 하고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전당, 전군 및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일뿐만아니라 금후 25년동안의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 투쟁과정에 있어서의 공작의 총적 강령이기도 하다.》라느니 뭐니 하였다. 이 말에 우리는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천안문광장에서 사건을 일으킨 반혁명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네가지 현대화를 실현한 그날》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지 않았던가? 이 사실은, 등소평의 궤악적 음모는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것으로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는것을 대체하고 당의 기본로선을 뜯어고침으로써 우리 당의 기본적 리론과 기본적 실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것이며 계급투쟁식별론과 생산력유일론의 반동적 리론을 팔아먹고 사회주의사회의 계급투쟁과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모주석의 학설을 거세함으로써 무산계급전정을 뒤엎고 자본주의를 복벽하려는것이라는것을 아주 똑똑히 증명하여주고 있다.

누가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벗인가? 이 문제는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계급투쟁이란 이 기본고리를 틀어쥐고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혁명의 대상이

무엇이며 투쟁의 예봉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건국이래 모주석께서는, 국내의 주요한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며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운동중에서와 위대한 무산계급문화대혁명중에서 모주석께서는 **《이번 운동의 중점은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투쟁하는것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하시였다. 최근 우경변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가운데서 모주석께서는 또 **《사회주의혁명을 하면서 자산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있다. 바로 공산당내부에 있는데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그것이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는 의연히 그 길로 나아가고있다.》**라고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모주석의 일련의 지시는 우리가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계속혁명을 견지하는데 있어서의 강대한 사상적 무기이다. 사회주의혁명을 하면서 이 주요한 모순을 틀어쥐지 않으며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혁명하지 않는다면 그 혁명은 가짜혁명인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복벽하는가, 문화대혁명을 옹호하는가 아니면 문화대혁명을 반대하는가 하는것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

의 모순이 국내의 주요한 모순이라는것을 승인하는가 승인하지 않는가, 계급투쟁이란 이 기본고리를 틀어쥐는가 틀어쥐지 않는가, 자산계급이 바로 공산당내부에 있다는것을 승인하는가 승인하지 않는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혁명하는가 혁명하지 않는가 하는데 달린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비록 계급투쟁, 주요한 모순따위의 말을 그럴듯하게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마치 도적놈이 자기가 물건을 훔친 곳을 피하듯이 당내의 자산계급과의 투쟁에 대하여서와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혁명할데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 글은 무산계급혁명도사들의 어록을 54개나 인용하였지만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투쟁할데 관한 모주석의 문술은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대 소홀한 탓인가? 아니다! 등소평의 반동적인 언론과 행동을 보기만 하면 그것이 우연적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자는 일관적으로 계급투쟁식별론을 고취하였으며 자산계급과의 투쟁을 반대하여왔다. 특히는 당내에 자산계급이 있다는것을 극력 부정하고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와 투쟁하는것을 극력 부정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주요한 모순을 부정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성질, 대상, 임무 및 전도를

뜯어고쳤다. 그자가 이렇게 한것은 바로 그자신이 당내의 자산계급으로서, 자산계급을 대표하고 있기때문이며 모주석께서 투쟁하라고 지적하신 그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다름아닌 바로 저들 수정주의 큰 판리, 나오리들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자는 그것을 극력 부정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편 다른 사람을 시켜 글을 써서 대대적으로 론술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취소해버리고 계급투쟁식별론으로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투쟁을 식별하며 특히는 무산계급과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와의 투쟁을 식별하려 시도하였다.

모주석께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1949년에 국내의 주요한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라고 제기하였다. 13년후에 계급투쟁문제를 다시 제기하였고 또 형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는것도 말하였다. 문화대혁명은 무엇을 하는것인가? 계급투쟁을 하는것이다. 류소기는 계급투쟁식별론을 설교하였지만 그 자신은 계급투쟁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저들 한무리의 반역자와 악당들을 보호하려 하였다. 립표는 무산계급을 라도하려 하였고 정변을 책동하였다. 계급투쟁이 식별되었는가?》 모주석의 이 지시는 계급투쟁식별론의 반동성과 기만성을 단

도직입적으로 폭로하였다. 투쟁실천이 말하여주
 다싶이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에 대한 진공을 하루
 도 멈춘적이 없으며 계급투쟁식별론을 크게 고취
 하는 때가 바로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창렬하게
 진공하는 때인것이다.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본
 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등소평은 류소기와 야
 합하여 수정주의로선을 실시하였었는데 문화대혁
 명에서 군중의 적발과 비판을 받고 입으로는 승
 인하면서 거짓으로 《영원히 번안하지 않을것을
 보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공작하게 되
 자 그자는 인차 우경번안풍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무산계급에게 달려들었다. 계급투쟁이 식별되었
 는가? 식별되지 않았다. 우경번안풍을 일으킨 등
 소평이 반격을 받게 되어 그자의 죄행이 갈수록
 폭로되고있을 때 한층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이
 급한 개 담을 뛰어넘듯 최후발악을 하면서 천안
 문광장에서 반혁명정치사건을 일으키고 등소평의
 공덕을 구가하며 등소평을 웨그리아반혁명사건의
 두목 나찌와 같은자로 내세우려고 시도하였으며
 발광적으로 예봉을 위대한 령수 모주석께 돌리
 고 모주석을 위수로 하는 당중앙을 분렬함으로써
 등소평을 비판하며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의 대방향을 돌려세우려 시도하였다.

계급투쟁이 식별되었는가? 조금도 식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도리어 무산계급과 당내의 자산계급과의 투쟁을 회피하면서 당내의 자산계급을 엄호하며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와의 투쟁을 부정하려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번 반혁명폭탄이 천안문광장에서 일어났지만 그 뿌리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등소평에게 있으며 등소평이 이번 사건을 도발한 막후총지휘자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 만일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와의 투쟁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그때 혁명적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고 연막탄을 터뜨려 무산계급에 대한 당내외 자산계급의 진공을 엄폐하는 것이 아닌가. 로신은 《원썬들은 두려워할 것 없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자기 대오내의 쯔벌레이다. 많은 일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잘못된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가 바로 무산계급혁명정당내의 쯔벌레인 것이다. 당내의 자산계급, 특히는 중앙의 평도직위를 절취한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는 매우 큰 권력을 장악하였고 공산당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맑스주의의 외의를 쓰고있으므로 그 기만성이 매우 크다. 일단 시기가 성숙되면 그자들은 당과 국가의 평도권을 찬탈하여 무산계급전정을 자산계급전정으로 고칠 것이다. 《수정주의의 집

정은 바로 자산계급의 집정이다.》 이 점을 모른다면 무산계급전정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수 없으며 이 점을 부인한다면 사회주의혁명을 취소하는 것으로 된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계급투쟁을 틀어쥔다는 어구들을 쓰면서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엄호하는 한편 탄심보를 품고 혁명의 주요한 대상은 이른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라는 주장을 따로 내놓았다. 그리고서는 인민대중과 그들과의 모순은 《적아모순》이라느니 그들과의 투쟁은 《당면 두개 계급, 두갈래 길, 두갈래 로선간의 투쟁의 집중적 표현이다.》라느니 뭐니 하였다. 그자들의 론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림표의 의발을 계승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들고 수정주의를 실시하며 북벽을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들고 북벽을 실시한다.》는것이다. 이 사람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모주석의 혁명로선을 전결히 집행하는 중국공산당인을 두고 한 말이며 시종일판 계급투쟁을 기본교리로 하는 맑스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인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등소평은 아주 명백히 말하였다. 그자는 《환향단》을 조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기껏해야 당신을 〈환향단〉이라고 할것이며 북벽하고 후퇴한다고 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등소평이 사회주의혁명의 투쟁의 대방향을 전이시키려 시도하며 혁명적 군중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자기의 뒤를 따라 수정주의를 벗어나, 맑스주의를 원수로 여기면서 무산계급을 발광적으로 진공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준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라는 글이 이른바 혁명의 주요대상을 따로 내놓은것은 바로 등소평의 이런 악랄한 심보를 로골적으로 포탈하였다. 도대체 누가 립표의 의발을 계승하였으며 도대체 누가 복벽하고 후퇴하는가? 이 감투는 립표반당집단의 음모활동을 견결히 분쇄한 무산계급혁명파에게 씌울수 없다. 우경변안풍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이것도 《정돈》하고 저것도 《돌려세워야 한다.》고 한자들, 사회주의중국을 단번에 자본주의의 옛길로 끌어가려 한자들, 반혁명정치사건을 일으키고 《진시황의 봉건사회는 영영 지나갔다.》고 발광적으로 절규하던 놈들이 바로 진정 립표의 의발을 계승한자들이며 복벽후퇴를 시도한자들인것이다. 이 감투는 당신들자신이 쓰는것이 적당하다! 재화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죄과를 남에게 넘겨씌우는 비렬한 수법으로서는 복벽하러 시도한 당신들의 정체를 덮어감출수 없는것이다.

투쟁실천은 사회주의혁명과정에 혁명투쟁의

대방향을 전이시키는 이것은 자산계급, 특히는 당내의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진공하고 무산계급에게 달려드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사색하여야 하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운동가운데서 등소평은 류소기와 야합하여 주요한 모순은 이른바 《4청과 4불청간의 모순》이며 《당내외모순의 교차》라는 등의 유론을 내놓고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투쟁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대다수사람을 타격하고 한줌도 못되는 자들을 보호》하며 사회주의교육운동을 그릇된 길에 끌어넣으려 시도하였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가운데서 등소평은 류소기와 같이 군중을 진압하고 자산계급반동로선을 실시하는 한편 《2월제강》을 조작하여 문화대혁명운동을 《순학술》토론의 궤도에 끌어넣으려 시도하였다. 이번 투쟁가운데서 등소평은 또 다른 사람을 시켜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에 대한 투쟁을 취소하려 하였다. 그자의 음모가 파탄되자 한줌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이 또 천안문광장에서 반혁명정치사건을 일으켜 등소평을 비판하는 투쟁의 대방향을 전이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다싶이 사회주의혁명이

침입되면 될수록 투쟁의 대방향을 더욱 단단히 틀어쥐어야 하며 계급관점으로 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경향과 구호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의 계급적 실질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급적 원수들에게 속아넘어가게 되며 방향을 잃게 된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위대한 계급투쟁으로서 억만 혁명적 군중을 발동하여 당내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들을 중점적으로 투쟁한 혁명이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는 등소평의 의사에 쫓아 번안, 복벽하기 위하여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악독하게 공격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발로하면서 《반란》에 대하여서와 《조류에 대항하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느니 《대명, 대방, 대자보, 대변론》은 계급성이 없다느니 뭐니 하였다. 그 무슨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느니 계급성이 없다느니 하는것은 혁명적 군중이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반란한것이 잘못되었다는것이며 《대명, 대방, 대자보, 대변론》이 잘못되었다는것이며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등소평의 반맑스주의적 반동립장이 충분히 폭로되었으며 이번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완전히 필요한것이며 아주 적시적**

인것》이라는 진리를 반면으로부터 재차 증명하였다.

《총적 강령에 대하여》가 계급투쟁식별론을 고취한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은 혁명적 인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대대적으로 무산계급을 진공하려는것이며 《명도권을 탈취하여》 문화대혁명을 번안하고 역사를 뒤로 끌어당겨 자본주의를 복벽하려는것이다. 그러나 **《번안하면 인심을 잃는다》**. 등소평이 번안, 복벽활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면서 사회주의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시도한 이것은 전'적으로 역사발전의 규률에 배치되며 무산계급과 혁명적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배치되므로 극히 고립되어있고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그자가 일으킨 우경번안풍은 타격을 받고있으며 한줌도 못되는 반혁명분자들이 일으킨 반혁명정치사건은 휘멸적인 타격을 받아 산산이 무너졌으며 등소평을 비판하며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며 반혁명을 철저히 밝혀내는 투쟁의 새 고조가 바야흐로 신속히 일어나고있다. 등소평의 복벽음모는 이미 파탄되고 《세가지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여야 한다.》는 그자의 수정주의강령도 역사의 쓰레기통에 쓸려들어가고있으며 무산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은 우경번안풍에 반격을 가하는 이번의 위

대한 투쟁을 거쳐 진일보 계급투쟁각오, 로선투
쟁각오와 계속 혁명할데 대한 각오를 높이고 맑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강대한 무기를 장악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1976년 5월 12일부 《로녕일보》에서)

[부록]

전당,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에 대하여

당의 10기 2중전회와 4기 인민대표대회는 모주석의 전의에 좇아 우리 나라 금후 25년간의 국민경제발전의 웅위로운 임무를 제기하였다. 첫번째 계단에는 1980년까지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건립하고 두번째 계단에는 본세기내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면에서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경제를 세계의 전렬에 서게 하는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주석께서는 무산계급전정리론을 학습할데 대한 지시와 안정과 단결을 촉진할데 대한 지시 및 국민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지시를 제출하시였다. 모주석의 이 세가지 중요한 지시는 현시기에 있어서 전당, 전군 및 전국의 각항 공작의 총적 강령일뿐만아니라 금후 25년간의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 두쟁과정에 있어서의 공작의 총적 강령이기도 하다. 모주석의 이 세가지 중요한 지시를 집행하는것은 곧바로 당의 기본로선을 집행하는것이며 당의 단결승리의 로선을 집행하는것이며 당의 사회주의건설총로선을 집행하는것이다.

지금 국제적 혁명인소와 전쟁인소는 모두 증장하고 있는바 혁명이 전쟁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전쟁이 혁명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국가가 독립하려 하고 민족이 해방되려 하고 인민이 혁명하려 하는 이것은 이미 항거할수 없는 시대적 거대한 조류로 되고있다. 두 초대국의 상호간의 쟁탈로 하여 결국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쏘련 수정주의자들의 전략적 중점은 구라파주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종 우리에게 손을 쓰며 하고있다.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 조국을 보위하며 침입하는 적을 섬멸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주석의 혁명적 의교로선을 집행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모주석께서는 다년래 우리에게 하나의 완전한 로선과 일련의 방침, 정책 및 방법을 제정해주셨는바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거쳐, 광범한 간부들이 모주석의 로선, 방침, 정책 및 방법을 장악하였고 수많은 공장, 광산 기업과 기층단위들의 명도권이 맑스주의자와 공농군중들의 수중에 장악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인민군중의 사회주의각오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성이 훨씬 증대되고있으며 사회주의사업이 생기발랄하게 발전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세는 대단히 좋으며 형세는 사람들을 촉진하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결심을 내리고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를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발걸음을 더 다그치며 금후 25년간의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증강하여야 한다.

(1)

모주석께서는 리론을 학습할때 관한 지시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레닌은 무엇때문에 자산계급에 대하여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가, 이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문제를 똑똑히 알지 못하면 수정주의로 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국이 다 알도록 하여야 한다.》

무산계급전정리론을 학습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것은 세가지 중요한 지시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리론은 행동의 지침이다. 리론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우선 참답게 책을 보고 학습하며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어록과 원저자들을 세심히 열독하여 그 정신실질을 체득하고 맑스주의적 령장, 관점, 방법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중의 실제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맑스주의의 리론을 정통하여야 하며 응용할줄 알아야 한다. 정통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응용하려는데 있다.》고 우리에게 교시하시였다. 무산계급전정리론학습에서의 우리의 성적이 좋고 나쁨과 크고 작음을 검열하는 유일한 표준은 우리가 이 리론을 응용하는가 못하는가, 이 리론을 응용함에 있어서 무산계급전정의 임무를 기층에 락실하는데 유리하게 응용하는가 못하는가,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정치적 국면에 유리하게 응용하는가 못하는가, 국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하도록 촉진하는데 유리하게 응용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는것이다.

모주석께서는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맑스주의의 학습

에 근거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의 력사적 경험을 총결하시고 사회주의 전반 력사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기본로선을 제정하여주시었다. 모주석께서는 리론문제에 관한 이번 지사에서 이 기본로선의 리론적 기초를 또 진일보 친출하시었다.

이번 리론학습운동가운데서 많은 동지들은 실제와 련계하여, 자신의 체험과 련계하여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 맑스주의와 수정주의간의 모순이 시종 사회주의라는 이 력사계단에 있어서의 주요한 모순이라는것을 진일보 인식하게 되었다. 이 주요한 모순을 단단히 틀어쥐고 시종일관 두계급간, 두갈래 길간, 두갈래 로선간의 투쟁을 진행하며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구별하고 처리하여야만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전면적 전정을 참답게 실현하며 자본주의복벽을 방지할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동지들이 사회주의력사계단의 계급투쟁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산계급전정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때문에 흔히 그릇된 구호들에 미혹되어 당의 기본로선을 망각하고있다.

무산계급전정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복잡성은 주로 맑스주의로 가장한 당내의 자산계급대리인이 자본주의를 복벽하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는데서 표현된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력사의 변증법에 의하여 맑스주의의 리론적 승리는 맑스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맑스주의자로 자기자신을 가장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류소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3대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후 계급투쟁식별론을 고취하고 당내자산계급대리인으로 되어 무산계급에 대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자기를 맑스주의자로 가장하였던것이다. 립표는 류소기의 계급투쟁식별론을 반대한다는 간판을 들고나와 《무산계급전정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당내자산계급대리인으로 되어 무산계급에 대하여 계급투쟁을 진행하였는데 그 역시 자기를 맑스주의자로 가장하였던것이며 또한 그 표현이 더욱더 돌출하였던것이다. 그자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붉은기를 들고 반란하여야 쉽게 간파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인민군중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적발폭로하였다. 《손에서는 어록을 놓지 않고 입에서는 만세소리가 그치지 않으며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악독한짓을 하였다.》

모주적계서 친히 발동하시고 평도하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류소기, 립표의 두 자산계급사령부를 적발폭로, 분쇄하였으며 그들의 반혁명적 양면파의 진상을 발가놓았다. 혁명적 인민과 혁명적 간부들은 이 투쟁에서 진정한 맑스주의와 가짜맑스주의를 식별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어떤것이 맑스주의로 가장한 정치적 사기군인가를 인식하였다. 다른 한편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도 자기들의 실패속에서 교훈을 섭취하여 자기를 더욱 교묘하게 가장하려고 애쓰며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처할 책략을 연구하며 <정세를 엿보다>가 일거에 성사하려 한다》.

이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은 립표의 의

밭을 계승하여 언제나 우리의 혁명구호를 가져다가 그것을 외곡하고 토막내고 밀매품을 밀어넣어 흑백을 혼동시키며 시비를 전도시키며 우리의 일부 동지들과 일부 군중들의 사상을 혼란시키며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의 당조직을 혼란시킴으로써 당을 분열시키며 공인계급을 분열시키며 군중대오를 분열시킨다. 그들은 수정주의를 반대한다는 기발을 내들고 수정주의를 실시하며 복벽을 반대한다는 기발을 내들고 복벽활동을 감행하며 당의 훌륭한 간부와 선진적인 모범인물들을 내며 앗히고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의 령도권을 찬탈하여 이 지방과 단위들에서 자산계급전정을 실시한다. 이자들의 계급적 기초는 어떤것은 본래부터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구자산계급분자이고 어떤것은 소생산자, 일부분 공인, 일부분 간부, 일부분 당원들 가운데서 퇴화변질한 새로운 자산계급분자이다. 그들은 안팎으로 결탁하여 탐오절도하며 투기모리하며 위법란기하며 자본주의를 실시하며 사회주의를 창궐하게 진공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생산건설을 파괴시키며 지어는 그곳의 사회주의소유제를 변질시킨다.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이 계급적 원수들과 인민대중간의 모순은 적아모순이며 그들과 공인계급, 빈하중농, 혁명적 간부, 혁명적 지식분자들간의 투쟁은 판가리싸움이다. 이런 투쟁은 바로 당면한 두개 계급간, 두갈래 길간, 두갈래 로선간에 진행되는 투쟁의 집중적 표현이다. 만일 이 계급적 원수들을 타승하지 않고, 그들이 찬탈한 령도권을 탈환하지 않는다면 무산계급전정을 모든 기층에까지 락실하는 임무를

완수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에 대하여 전면적 전정을 실시한다는것도 빈말로 되고말것이다.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에서 완고하게 자산계급적 파벌성을 부리는 책임자들이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판가리싸움을 한켠에 제쳐놓고 이 주요한 모순을 한켠에 제쳐놓고있는 그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창궐하게 공격하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증오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생산전설이 손실을 당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가슴아파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파괴당하는데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종파를 꾸리며 파벌싸움을 하는데 열중하면서 장기간 소위 이 파벌과 저 파벌간의 투쟁, 소위 반관파와 보수파간의 투쟁, 소위 신간부와 로간부간의 투쟁, 소위 《유가》와 《법가》간의 투쟁에 구애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지어 자산계급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림없이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과 합류하며 호흡을 같이한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맑스주의가 없으며 모택동사상이 없으며 공산당이 없으며 사회주의가 없으며 지어는 애국주의마저 없다. 이제는 이런 동지(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동지라고 부른다.)들에게 위급한 관두에 이르렀으니 즉시로 돌아서라! 고 크게 소리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앞에는 오직 《선택하여야 할 두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착오를 시정하고 훌륭한 당원으로 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하며 지어는 반혁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것이다. 후자의

길은 확실히 존재하고있는데 반혁명분자는 거기서 오르고 손짓하고있을것이다》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의 상술한 문제는 성, 시, 지구, 현의 명도하에서 당중앙의 방침, 정책, 지시에 좇아 어떤데서는 이미 해결되었고 어떤데서는 해결되는중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 즉 계급사회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에 대하여 맑스주의적 계급분석을 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예를들면 《반란》에 대하여는 그가 어느 계급에 대하여 반란하며 어느 계급을 대표하여 반란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또 예를들면 《조류에 대항하는》에 대하여는 그가 어떤 성질의 조류에 대항하는가, 맑스주의의 조류에 대항하는가 아니면 수정주의의 조류에 대항하는가, 정확한 조류에 대항하는가 아니면 그릇된 조류에 대항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예를들면 《대명, 대방, 대자보, 대변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자체에는 계급성이 없으므로 무산계급이 이 무기들을 리용하여 자산계급을 반대할수도 있고 자산계급이 그것들을 리용하여 무산계급을 반대할수도 있다. 요컨대 모주석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서든지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좋고 나쁜것을 분간한후에 그것을 환영할것인가 배격할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든지 어째서 그런가를 따져보아야 하며 자기의 머리로써 주밀한 사고를 거쳐 그것이 실제에 맞는가, 정말 도리에 맞는가를 생각하여보아야 하며 맹종하거나 노예주의를 제창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의 동지들은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것은 즉 맑스주의로 가장한 정치적 사기꾼을 간파해야 하는바 절대로 그들의 선언만 보지 말고 그들의 실제행동을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바로 레닌이 말한바와 같다. 《한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그자신의 말이거나 그자신에 대한 그의 견해에 의해서 판단할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철학가들을 판단할 때에도 그들자신이 내걸고있는 간판……에 의해서 판단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지로 기본적인 리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 누구와 손을 맞잡고나아가는가, 자기들의 제자나 추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또 무엇을 가르치고있는가 하는것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수 모주석께서는 립표의 실제행동에 의해서 그가 《높이 들고》라느니, 《절정》이라느니, 《천재》라느니, 《절대적 권위》라느니 하는 등의 극《좌》적인 문구들로 덮어감춘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수정주의적 극우적인 실질을 간파하시였다. 립표를 비판하고 작풍을 바로잡는 운동에서와 립표와 공구를 비판하는 운동에서 모주석께서는 또 립표란 이 반면교원의 반면교재를 군중에게 공포하여 전당, 전군 및 전국인민더러 그것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립표는 국내의 신구자산계급분자,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및 국외의 제국주의자, 수정주의자, 반동파들과 손을 맞잡고나아갔으며 《571공정기요》란 이따위 철두철미 반동적인것으로 자기의 악당파 추종자들을 가르쳤다는것을 일반이 다 똑똑히 알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 야십가, 음모가, 반역

자, 매국역적의 추악한 물골을 진일보 폭로하였다.

로선은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에는 옛날음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립표가 나뉘어진 후 지금 일부 지방과 일부 단위들에서는 맑스주의로 가장한 정치적 사기꾼들이 또 립표의 옛날음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주석께서 일찍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장하고나선 반혁명분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상을 보이고 진상을 덮어감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혁명을 하는 이상 그 진상을 아주 철저하게 덮어감출수는 없다》. 우리가 립표반혁명음모집단과 투쟁한 경험교훈을 명기하고 레닌과 모주석의 교시를 명기하기만 하면 립표 따위의 도깨비수작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도 불가피적으로 립표처럼 나뉘어지고 말 것이다.

(2)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시작하여 8년이 지났다. 지금은 안정하는 것이 좋겠다. 전당, 전군이 단결해야 한다.》 우리가 리론을 학습하고 로선을 틀어쥐는 것은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단결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 즉 무산계급전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때때 공장, 농촌, 기관, 학교에 락실하여야 한다.》

무산계급전정의 첫째작용은 국가내부의 반동계급, 반동파와 매국적을 압박하고 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신구 자산계급분자를 압박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자를 압

박하고 절도법, 사기법, 살인방화법, 건달집단, 그리고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악질분자를 압박하는것인바 이는 국내의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둘째작용은 국가외부의 적들이 감행하는 전복활동과 있을 수 있는 침략을 막아내는것인바 이는 대외적으로 적아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이 전정의 제도가 인민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민자신이 자신을 전정할수는 없으며 한부분 인민이 다른 한부분 인민을 압박할수는 없다.

인민내부에도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바 이러한 모순은 모주석께서 말씀하신 단결——비평——단결의 공식에 의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곧 단결의 념원으로 부터 출발하여 비평과 투쟁을 거쳐 시비를 가르고 새로운 기초우에서 새로운 단결에 도달한다는것이다. 모주석께서는 《여기에서는 우선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할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관상에서 단결의 념원이 없다면 투쟁에서 틀림없이 사태를 혼란하게 만들어 수습할수 없게 하기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잔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고서야 어찌 당의 단결을 운운할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기본로선은 《계급모순과 계급투쟁문제를 정확히 리해하고 처리하며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구별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우리는 당의 기본로선에 규정된 이 총적 정책에 비추어 적아의 계선과 시비의 계선을 갈라야 하며 《적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며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소멸》하고 《자기

편 사람에게 대하여, 인민에 대하여, 동지에 대하여, 삼판에 대하여, 부하에 대하여서는 친절하며 그들과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단결할수 있는 모든 역량과 단결하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적을 분화와해시키고 자산계급에 대하여 전면적 전정을 실시할수 있다.

류소기, 립표따위 맑스주의로 가장한 정치적 사기꾼들이 무산계급전정을 파괴하고 모택동사상을 반대하는데 사용한 가장 악독한 수단이 바로 두가지 모순을 혼동하고 적아를 전도하여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삼는것이다. 류소기는 《4청》운동에서 당의 기본로선을 외곡하여 사회주의력사계단에 있어서의 주요모순을 《4청과 4불청간의 모순》이니 《당내외모순의 교차, 혹은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의 교차》이니 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이 주요모순을 덮어감추었다. 그자는 형식상 좌적이고 실지는 우적인 수정주의로선을 실시하여 대량의 간부를 타격하고 당내의 한층도 못되는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보호하였다. 립표는 류소기보다도 더 교활하게 형식상 좌적이고 실지는 우적인 수정주의로선을 실시하였다. 그자 역시 당의 기본로선을 외곡하고 사회주의력사계단의 주요모순을 외곡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원래 혁명한자들을 혁명하는것》이니 뭐니 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광범한 혁명간부와 혁명군중에 들리였고 한때, 일부 문제에서의 군중전해의 불일치를 리용하여 군중을 추겨 군중을 투쟁하고 원력투쟁을 지지, 묵인하였으며 수많은 인민내부모순을

적아모순으로 삼고 또 적에 대한 투쟁방법을 취하였으며 지어는 적에 대한 투쟁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혁명동지에 대해 《참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녀는 투항분자와 변절분자를 끌어들여 사당을 붓고 반혁명음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리하여 반혁명정변을 일으키고 무산계급전정을 전복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복벽하려 시도하였다.

우리는 류소기, 립표의 반혁명수정주의로선을 계속 비판하여 그자들의 류독을 철저히 숙청해야 하며 특히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 명도권을 찬탈한 지방과 단위들에서 더욱 광범하게, 충분히 군중을 발동하여 신구자산계급분자, 탐오절도분자, 투기모리분자, 부화타락분자, 위법란기분자, 형사범죄분자들이 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한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자들이 립표의 반혁명량면수단을 계승하여 발광적으로 사회주의를 진공하고 자본주의를 복벽한 죄악적 활동을 철저히 폭로하여야 한다. 폭로, 비판, 투쟁, 교육을 거쳐서도 여전히 자기의 반동립장을 고집하며 한사코 회개하며 하지 않는 분자에 대하여는 최대한도로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짓부셔 《순순히 복종만 하고 함부로 지껄이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적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책인바 우리는 이 정책을 견결히 탁실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이러한 지방과 단위에 안정되고 단결된 정치국면이 나타날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눈동자를 애호하듯 전당의 단결을 애호하고 전군의 단결을 애호해야 하며 전국인민의 단결을

애호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국가의 통일, 인민의 단결, 국내 각 민족의 단결, 이것은 우리 사업이 필연코 승리하게 되는 기본적 담보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모주석께서는 항일전쟁시기에 《오직 공산당의 단결을 통하여서만 전체 계급, 전체 민족의 단결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오직 전체 계급, 전체 민족의 단결을 통하여서만 적을 전승하고 민족, 민주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다. 신민주주의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거둔후 1954년에 모주석께서는 또 한번 당의 단결을 강화할것을 강조하시였으며 당내에 기여든 자산계급 대리인이 당을 분렬할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성을 가지라고 전당의 동지들을 일깨워주시였다. 당의 제9차 대표대회와 제10차 대표대회에서도 제삼 전당의 동지들에게 《단결하여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하자》고 호소하시였다. 전당의 당원은 로당원, 신당원을 물론하고, 전체 간부들은 로간부, 신간부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모주석의 교시를 받들고 무산계급의 당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단결을 당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단결에 유리한 말은 하고 단결에 불리한 말은 하지 말며 단결에 유리한 일은 하고 단결에 불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중을 물론하고 자산계급적 파벌성착오를 범한 모든 동지는 누구나 결심을 내리고 참답게 검사하며 착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전체 당원, 특히 당원간부들은 모주석께서 제출하신 《수정주의를 실시하지 말고 맑스주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렬하지 말고 단결하여야 하며 음모계계를 꾸미지 말고 광

명정대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결히 준수하여야 한다. 조직기물성과 정치기물성을 강화하며 중앙의 령도에 복종하고 상급의 령도에 복종하고 당조직의 결의에 복종하며 당의 민주집중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당원, 어떤 간부를 물론하고 파벌이나 종파를 무어 조직상에서 자기의 계통, 자기의 판국을 만들며 자기가 관할하는 지구와 단위를 독립왕국으로 만드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체 당원, 특히 당원간부는 광명정대해야 하며 당에 충직하고 성실하며 자기의 관점을 속이지 말고 의견이 있으면 책상우에 내어놓아야 한다. 겉으로는 동의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며 말로는 좋다 하고 속으로는 그르게 생각하며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방해를 노는 양면파행위를 반대해야 한다. 전체 당원들은 모두 전반 국면을 중히 여기며 당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 리익을 당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입당할 때 선서한 말을 충직하게 리행하여 공산주의사업을 위해 끝까지 분투하며 자산계급세계관을 힘써 개조함으로써 자산계급사상의 침식을 막아내고 자산계급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사상상, 정치상에서의 로선의 정확여부는 일체를 결정한다. 당의 로선이 정확하면 모든것이 있게 된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총이 없으면 총이 있게 되고 정권이 없으면 정권이 있게 된다. 로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있던것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맑스주의적 강령과 정반대로 반혁명정변을 실시하기 위한 립표의 강령은 정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정권이 없으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는것이다. 이것의 위험성은 이 자산계급 야심가, 음모가가 자기의 반동강령을 맑스주의로 가장하고 그것을 리론이라 함으로써 《조정에서는 명예를 닦고 저자에서는 리익을 닦는》 그런 무리들에게 정신무기를 주고 한편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이에 속아 그자들이 당과 정권을 찬탈하는 추악한 행동에 대한 경각성을 상실하는데 있는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반동강령을 심도있게, 철저하게, 여지없이 비판하여 그 시장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공인계급은 우리 나라의 명도계급이다. 전체 당원, 전체 간부는 모두 《전심전의로 공인계급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신 모주석의 지시를 받들고 전체 공인계급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무산계급문화대혁명과정에 모주석께서는 《공인계급내부에는 근본적인 리해충돌이 없다. 무산계급전정하에서의 공인계급내부에는 랑립할수 없는 두개의 큰 파벌조직으로 꼭 분렬되어야 할 리유는 더구나 없다.》고 지적하시였으며 또 《두 파는 각기 대방의 결점과 착오에 대하여는 적게 말하고 대방의 결점과 착오에 대하여는 그자신이 말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파는 각기 자아비평을 많이 하며 큰 면에서 일치를 가져오고 작은 면에서의 차이는 보류하여야 한다. 이래야만 혁명적 대련합에 유리하다.》고 지적하시였다. 절대다수의 공장, 광산 기업과 사업단위들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모주석의 이러한 지시에 좇아 혁명적 대련합을 실현하였으며 공인계급의 대단결을 실현하였다. 지금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이미 9년을 경과하였다. 그런데 어떤 지방, 어떤

단위에는 아직도 공인계급을 분별하며 자산계급적 파벌성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전체 공인계급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자신이 만든 이러저러한 파벌에 의거하고있다. 그들은 아직도 공인계급내부에서 《나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있으며 자기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은 《좋은 대렬에 섰고》《가장 혁명적》이라고 하며 자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른 대렬에 섰고》《혁명적 이 아니라》는 감투를 씌우며 지어는 로공인과 무법인물들에 대해서까지도 《보수파》, 《복벽세력》이라고 한다. 그들은 《두 파는 각기 자아비평을 많이 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자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자아비평을 하지 않으며 남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한사코 압도해버리려 들며 이에 찬성하지 않으면 《얼버무리는것》이고 《중용지도》라고 한다. 공인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는 그들의 이러한 수단은 권리를 탈취하여 한 파의 패권을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착오인것이다.

모주석께서는 《**균중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대개 세 부분의 사람, 즉 비교적 적극적인 사람과 중간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적 락후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시하시였다. 공인계급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별이 존재한다. 우리는 사업에서 선진분자를 골간으로 하고 중간분자를 이끌어나가면서 락후분자를 방조 교육하여야 하며 단결하여 다같이 전진하여야 한다. 공인계급내부에 있어서의 세 부분의 구별은 변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호상 전화하는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쟁과정에서 나오는 적극분자들을 부단히 제발하여 원래 있던 골간중에서 손색이 있는자 또는 타락한자들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혁명투쟁과 생산투쟁의 발전수요에 적응하여 전체 공인계급의 각오정도와 조직정도를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것으로서 이는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이 공인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는 그런것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것이다.

당의 단결, 공인계급의 단결,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단결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의 각항 정책을 가일층 탁실하여야 하는데 그중에는 간부정책, 지식분자정책, 과학기술인원정책, 민족정책, 경제정책 및 공인계급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관계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며 전국적으로 《집중도 있고 민주도 있으며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으며 통일적 의지도 있고 개인의 심정이 유쾌하고 생동활발하기도 한 정치적 국면을 형성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리롭게》 할수 있다.

(3)

무산계급전정의 목적은 모주석께서 지적하시다싶이 《전체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과학문화를 소유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려는데 있다》. 무산계급전정의 리론을 학습하고 무산계급전정의 임무를 기층에까지 탁실하며

성질이 다른 두가지 모순을 정확히 구별하고 처리하여 전국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것은 사회주의상층건축을 조절하는 임무에 속한다.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기초를 강화하는 임무에 속한다. 그것들간의 상호관계가 바로 혁명과 생산의 관계이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이며 상층건축과 경제기초의 관계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실천과 이론, 경제기초와 상층건축, 이 여러가지 모순에서 총적 력사발전행정에 있어서는 생산력, 실천, 경제기초가 일반적으로 주요한 결정적 작용을 논다고 맑스주의는 인정한다. 이 점을 승인하지 않는자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생산관계, 이론, 상층건축 등 방면이 반전하여 자기의 주요한, 결정적 작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유물론에 위반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적 유물론에서 벗어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견지하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오늘 아직 발전중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이며 국내에 계급, 계급모순,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력사계단에 처하여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모주석께서는 우리에게 무산계급전정의 이론을 학습하며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것을 첫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정치가 통수이고 평론이라는데 대하여 재삼 전당의 주의를 환기시키시였다. **《정치공작은 모든 경제공작의 생명선이다. 사회경제제도에 근본적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더구나 그러하다.》** 만일 우리가 이론학습을 홀시하고 정치의 통솔작용을 홀시한다면 우리의 모든 공작은 틀림없이 기로에 빠지게 될것이다. 바로 레닌이 말하

다싶이 《정치는 경제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수 없다. 이 점을 긍정하지 않는것은 맑스주의의 초보적인 상식마저 잊어버리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선다. (맑스주의적 견지에서는 이렇게만 설수 있다.) 즉 한 계급이 만일 정치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통치를 유지할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 임무도 해결할수 없을것이다.》

맑스주의리론에 비추어 우리는 류소기따위 정치적 사기꾼이 설교한 생산력유일론을 비판하였다. 이자들의 이 황당한 론조의 핵심을 이루는것은 생산자료소유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후 국내의 주요모순은 이미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인것이 아니라 선진적 생산관계와 낙후한 생산력간의 모순이라는것이다. 그리고 그자들은 여기서 소위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킬 임무가 혁명의 임무를 대신하여 첫째임무로 되였다는 결론을 얻어내고있다. 그자들의 험악한 심보는 계급투쟁식별론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자기들의 자본주의복벽에 리롭게 하려는것이다. 이러한 생산력유일론을 비판하는것은 전'적으로 정확한것이며 완전히 필요한것이다. 오늘 비판할뿐아니라 금후에도 계속 비판하여야 한다.

림료따위 정치적 사기꾼은 표면적으로는 류소기와 반대로 다른 한 극단으로 달아난것 같지만 사실은 류소기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이자는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시켜 정치의 통솔작용을 정치는 모든것을 총격

할수 있다는것으로 외곽하였다. 이자는 《한시도 계급투쟁을 잊지 않으며 한시도 무산계급전정을 잊지 않으며 한시도 정치를 돌출히 하는것을 잊지 않는다.》는 미사려구의 엄호밑에 자산계급정치로 무산계급정치를 충격하고 무산계급전정을 충격하고 사회주의경제를 충격하고 국가계획을 충격하고 기업관리를 충격하고 생산질서를 충격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부 지방과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생산건설에 엄청난 손실을 주었다. 류소기의 생산력유일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치는 모든것을 충격할수 있다는 립포의 허황한 론조를 무자비하게 비판하여 이런 반동적 론조의 류독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모주적의 교시에 좇아 정치와 경제의 대립통일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즉 정치의 통솔적 작용을 알아야 할뿐아니라 정치공작은 경제공작을 완수하는데 있어서의 담보이며 경제기초를 위해 복무한다는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 혁명과 생산간의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대하면서 언제나 정치와 경제를 서로 분리시키며 혁명과 생산을 서로 분리시키며 정치만 강조하고 경제는 강조하지 않으며 혁명만 강조하고 생산은 강조하지 않으며 생산을 틀어쥐고 경제건설을 잘하자는 말만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생산력유일론》이란 감투를 씌우고 수정주의를 실시한다고 나무린다. 이런 관점은 근본적으로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실제상 이런 관점은 그 무슨 새로운것이 아니라 일찍 제2차 국내혁명전쟁에서 왕명의 《좌》경기회주의로선이

통치적 지위를 차지하고있을 때 벌써 이 관점을 설교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모주석께서는 《경제공작에 주의를 돌리자》는 저작에서 이런 착오적 관점에 대하여 엄격히 비판하신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거 일부 동지들은 혁명전쟁만 하여도 여간 바쁘지 않은데 어디에 경제건설공작을 할 겨를이 다 있는가고 여기면서 경제건설을 운운하는 사람만 보면 <우경>이라고 욕하였다.》 《혁명전쟁의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고 여기는 이런 견해는 아주 착오적인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모든것은 전쟁에 복종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건설을 포기한다면 결국 전쟁에 복종하는것이 아니라 전쟁을 악화시키게 된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오직 경제전선방면의 공작을 전개하여 홍색구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혁명전쟁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축성할수 있고 우리의 군사적 진공을 순리롭게 전개하여 적의 <포위토벌>에 유력한 타격을 줄수 있다.》 간고한 혁명전쟁의 년대에도 모주석께서는 경제건설공작을 이와 같이 중시하시였으며 혁명전쟁의 물질적 기초의 증강을 이와 같이 중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무산계급이 전정하는 사회주의국가로 되었으며 평화적 건설을 할수 있는 국내적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또 제국주의와 사회제국주의의 전복과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짜내고 배가의 힘을 들여 국민경제를 되도록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초를 강화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항일전쟁의 말기에 모주석께서는 정풍운동 및 대생산

운동의 경험을 총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1942년과 1943년의 2년간에 선후하여 시작된 보편성을 띤 정풍운동과 생산운동은 정신생활면에서와 물질생활면에서 각각 결정적인 작용을 놓았으며 또 놓고있다. 만일 이 두개 고리를 적절한 시기에 틀어쥐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명의 연쇄전체를 틀어칠수 없게 되고 우리의 투쟁도 계속하여 전진할수 없게 될것이다.» 정풍운동과 생산운동이 한창 전개되고있을 때 모주석께서는 정풍과 생산 이 두개 고리를 분리시키며 생산을 홀시하고 경제공작을 경시하는 착오적 경향들에 대하여 비판하시었다. «경제문제와 재정문제»란 저작에서 모주석께서는 이런 착오적 경향의 사상적 근원을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시었다. «동중서들의 이른바 <의를 바르게 하고 리득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밝히고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는 유심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썩어빠진 말들에 중독되었고 아직 그 독을 깨끗이 숙청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정치, 당사업, 군사가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며 경제공작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을것이므로 경제공작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거나 더 많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데 있다.»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정풍과 생산 «이 두가지 공작가운데서 교육(혹은 학습)은 고립적으로 진행할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학문을 닦으면 그가운데 록이 있다.>는 시대에 처하여있지 않는것만큼 배를 굶으며 <의를 바르게 하고 도를 밝힐>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며 경제공작에 주의를 돌리여야 한다.

경제공작을 떠나서 교육이나 학습을 운운하는것은 쓸데 없는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공작을 떠나서 <혁명>을 운운하는것은 재정침을 혁명하며 자기자신을 혁명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적은 추호의 손실도 입지 않을것이다》. 모주석께서는 이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하시였는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고 생동하게 말씀하시였는가! 아직까지도 생산건설을 경시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그래 모주석의 지시에 비추어 자기의 언행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인가? 만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들이 공맹지도의 《유심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썩어빠진 말들에 중독된》 정도가 매우 깊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그래 이따위 썩어빠진 말의 독소를 깨끗이 숙청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것이며 혁명은 생산력의 발전을 추진시키는것이다. 우리 중국공산당인은 혁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뿐아니라 생산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머리속에서부터 《혁명을 틀어쥐면 안전하고 생산을 틀어쥐면 위험하다.》, 《혁명은 아주 중요하지만 생산은 차요적이다.》, 《혁명을 틀어쥐면 잘 쓰이지만 생산을 틀어쥐면 고생만 한다.》는 그릇된 생각들을 일소해버려야 한다. 공인계급, 빈하중농, 혁명적 간부, 혁명적 지식분자 및 기타 혁명분자들에 의거하며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하여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하며 공작을 촉진하며 전쟁준비를 촉진》하는 방침을 견결히 집행함으로써 자기가 있는 지구와 단위의 혁명 및 생산을 본격적으로 잘 틀어쥐어야 한다. 잡말을 듣

지 말며 허튼수작을 두려워하지 말며 응심대지를 세우고 몇몇하게 나서서 일하여야 한다. 《대자연과 싸우며 계급의 적들과 싸우며 착오적 사상과 싸워야 한다.》고 대경사람들은 아주 적절하게 말하였다. 대채사람들도 《혁명을 대대적으로 강조해야 할뿐 아니라 혁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며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것은 진정으로 혁명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역시 대대적으로 강조해야 할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것은 진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여년간 투쟁실천가운데서 알게 된 진리이다.》라고 아주 잘 말하였다. 우리는 대경과 대채에서 혁명을 틀어쥐고 생산을 촉진한 혁명적 사상과 혁명적 열의를 진정으로 따라배워야 한다. 《지난 혁명전쟁시기의 그런 기세, 그런 혁명열정, 그런 결사적 정신을 발양하여 혁명공작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생산을 다 잘 전개함으로써 본지구와 본단위의 혁명형세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생산진설이 날마다 융성발전되게 하여야 한다.

레닌은 일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치교육의 성과는 오직 경제상태의 개선에 의하여 측정된다.》 모주석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그 실천이 중국인민들속에서 나타내는 작용이 좋은가 나쁜가, 큰가 작은가 하는것은 결국 그것이 중국인민들의 생산력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못 주는가, 그 도움이 큰가 작은가 하는데서 결정되며 생산력을 속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력을 해방시키는가 하는데서 결정된다.》 진정한 맑스주의와 가짜맑스주의간의 구별, 옳

은 로선과 그릇된 로선간의 구별, 진정으로 혁명하는 것과 가짜로 혁명하는것간의 구별, 진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과 가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간의 구별, 간부의 공작성파가 나쁜가. 좋은가, 큰가 작은가 하는것간의 구별 등등은 결국 오직 레닌과 모주석께서 제출하신 이 표준에 의해 측정할수밖에 없으며 또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어느 지방, 어느 단위의 생산이 아주 잘되지 못하였는데도 혁명을 아주 잘했다고 역설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을 잘 틀어쥐면 생산은 자연적으로 올라갈것이니 힘을 들여 생산을 틀어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견해는 돌을 만지면 금으로 된다는 동화에 도취된 사람만이 믿을것이다.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계급투쟁, 생산투쟁 및 과학실험은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가지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이것은 공산당 인들로 하여금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피면하며 영원토록 불패의 지반에 서게 하는 튼튼한 담보이며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광범한 로동군중과 련합하여 민주전정을 실시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이 3대혁명운동은 서로 련계되어있는바 우리는 계급투쟁을 기본고리로 하여 생산투쟁과 과학실험을 전개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3대운동은 각기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자기의 특점과 규률을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특수한 모순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급투쟁의 특점과 규률을 장악하였고 계급투쟁가운데의 특수한 모순

을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산투쟁과 과학실험의 특성과 규율을 장악한것은 아니며 이 2대혁명운동중의 특수한 모순을 해결한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우리는 간고한 노력을 들이고 일련의 공작을 진행함으로써 생산투쟁과 과학실험 가운데 존재하는 특수한 모순을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우리의 간부들은 계급투쟁을 할줄 알아야 할뿐아니라 생산투쟁과 과학실험도 할줄 알아야 하며 그리하여 정치도 알고 업무도 알게 되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와 업무의 관계에서 정치는 주요한것이고 첫째가는것이다. 정치를 불문하는 경향은 반드시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을 모르고 업무를 몰라도 안된다. 우리의 동지들은 공업에 종사하든, 농업에 종사하든, 상업에 종사하든, 문화교육사업에 종사하든 기술과 업무를 좀 배워 능숙하여짐으로써 자신을 높고도 전문화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은 모주석의 지시를 참답게 집행하며 이신작착하여 광범한 군중과 과학기술일군들을 이끌고 높고도 전문화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모주석의 혁명로선의 인도 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 규율을 잘 연구하며 농업, 경공업, 중공업의 순차에 따라 농업을 첫차리에 놓고 각 경제부문간의 비례관계를 잘 안배하며 그것을 종합하고 균형시켜 통일적인 국가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해마다 달마다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날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이런 새로운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모순이 부단히 나타나고 또 그것을 부단히 해결하는 이것은 우리가 경제공작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변증법적 규률인 것이다.

국민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각 업종, 각 부문, 각 단위들에서 필요하고도 엄격한 규장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건전히 해야 한다. 생산투쟁과 과학실험에 필요한 규장제도는 노동인민과 과학기술인원들이 여러해동안 실천한 경험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그중 많은것은 피의 대'가로 바꾸어온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것이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되며 분석도 가하지 않고 모든 규장제도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압제하는것》이라고 보아서는 더구나 안된다. 생산투쟁을 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규장제도를 준수하면 사람들은 생산투쟁에서 갈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을수 있으며 이런 규장제도를 위반하면 생산투쟁에서 필연코 실패하게 된다.

책임제는 기업소규장제도의 핵심이다. 책임제를 세우는것을 기업관리를 정돈하는 중요한 고리로 삼아야 한다. 매개 공작, 매개 강위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매개 간부, 공인, 기술인원들은 모두 명확한 직책이 있어야 한다.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하여 간부와 군중의 책임심을 높임으로써 규장제도를 준수하는것이 군중의 자각적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엔겔스는 《권위에 관하여》란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누가 과학과 창조적 천재로 자연력을

정복하였다면 그가 자연력을 리용하는 그만큼 그 자연력도 그 사람자신을 사회적 조직여하와는 관계없이 진정한 전제에다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수할것이다. 대공업에서 권위를 없애려는것은 그 공업자체를 폐지하려는것, 즉 증기방적기계를 없애버리고 물레로 되돌아가려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엔겔스의 이 말은 생산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발전이 요구하는 규장제도도 갈수록 더 엄밀해지고 갈수록 더 사람에게 이런 규장제도를 엄격히 준수할것을 강요하며 이런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규장제도는 사람들에게 제때에 개혁할것을 요구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발전을 방해하게 되며 과학기술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리할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리하며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역시 이리할것이다. 새로운 규장제도를 건립하든지 낡은 규장제도를 개혁하든지 간에 모두 군중에 의거하고 집체의 지혜를 집중하며 생산투쟁발전의 객관적 규률에 따라 결정지어야 한다. 만일 주관에서 출발하여 마음대로 해치운다면 생산관리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황이 나타나게 되며 무조직, 무기률,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게 되어 필연코 객관 규률의 정벌을 받게 된다. 바로 모주석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무정부상태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민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각급 령도들이 생산과 생활을 동시에 들어줘야 한다. 군중의 정치생활에 관심을 돌릴뿐 아니라 군중의 물질생활에도 관심을 돌려야 하

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군중의 생활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 군중의 생활상의 문제들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해결할수 있는것은 군중을 발동하여 자체로 적극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일찍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의 옹호를 받으려고 하는가? 군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력을 전선에 기울이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군중과 한덩어리로 되여야 하며 군중의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하며 군중의 고통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성심성의로 군중의 리익을 도모하며 군중의 생산문제와 생활문제, 소금 문제, 쌀문제, 주택문제, 의복문제, 해산문제를 해결하여주며 군중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였을 때 광범한 군중은 필연코 우리를 옹호할것이며 혁명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간주할것이며 혁명을 자기들의 더없이 영광스러운 기치로 간주할것이다.》

공업이 발전할수록, 공업의 비중이 증가될수록 농업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 모주석께서 여러번 거듭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부 성지, 일부 공장광산구에 대한 부식품공급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다. 이런 지방의 령도자들은 대경과 같은 그런 선진단위를 따라배우지 않을뿐아니라 자기절로 경험을 얻어내고 군중을 발동하여 농업을 잘 틀어쥐려고도 하지 않는다. 군중생활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큰일에 대해 절절 끝면서 장기간 해결하지 않는 이것이 《군중의 고통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성심성의로 군중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신 모주석의 지시와 도대체 얼마

나 거리가 번가 잘 생각하여보라!

(4)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는 서로 련결되는, 분할할수 없는 통일체로서 그 어느 한가지도 망각해서는 안되며 그중의 어느 한가지만을 고립적으로 틀어쥐여도 안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가지 중요한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래의 풍부한 경험을 총결하여 각항 공작의 구체정책을 제정하고 이 공작총강령과 각항 정책으로 각 부분의 공작을 지도하며 각 부분의 공작을 정돈하여야 한다. 공업도 정돈해야 하며 농업도 정돈해야 하며 교통운수업도 정돈해야 하며 재정무역도 정돈해야 하며 과학기술도 정돈해야 하며 문화교육위생도 정돈해야 하며 문학예술도 정돈해야 하며 군대도 정돈해야 하며 당도 정돈해야 한다. 이번에 정돈하는 목적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명년부더 시작되는 제5차 5개년계획을 맞이하기 위한것이다.

모주석께서는 《우리의 사업을 령도하는 핵심적 력량은 중국공산당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각 방면의 정돈 가운데서도 당에 대한 정돈과 당공작에 대한 정돈이 중점이다. 《공, 농, 상, 학, 병, 정, 당 이 일곱개 방면에서 당이 일체를 령도한다. 당이 공업, 농업, 상업, 문화교육, 군대와 정부를 령도한다.》 각 지방, 각 단위의 모든 공작, 모든 정치운동은 모두 당위에서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와 각항 구체정책에 쫓아 통일적으로
 평도해야 한다. 혁명위원회, 공회, 청년단과 민병들은
 모두 동급당위의 일원화평도밑에서 공작을 진행해야 한
 다.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이나 다 자신을 당의 우에 놓
 아서는 절대 안된다. 어떤 당원이나 어떤 당의 간부나
 다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
 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전당은 중앙에 복종하여야 한다.》
 는 조직원칙과 조직기물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된다.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와 각항 구체정책을 락
 실하자면 그 관건은 각급 당위의 평도를 강화하며 각급
 당위의 평도반즈를 강화하는데 있다. 각급 평도반즈는
 혁명적 후계자를 배양할데 대한 모주석의 다섯가지 조건
 및 로선, 중년, 청년 3결합의 원칙에 쫓아,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견지할수 있고 당성이 강하고 작풍이 좋고
 사람들과 단결할수 있는 동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급 평도반즈들은 과감성을 앞세우고 과감히 평도하며 과
 감히 투쟁하며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수들과 과
 감히 투쟁하며 자산계급과별성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T
 두머리들과 과감히 투쟁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위
 반하는 모든 그릇된 경향과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진
 정한 맑스주의와 가짜맑스주의를 식별할줄 알아야 한다.
 시종일관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적 경향을 비판
 하며 자산계급사상을 비판하여야 한다. 《**철저한 유물주
 의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주석의 혁명로
 선을 집행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며 진리를 위하여
 싸우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동지들은

반드시 모주석과 당중앙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광범한
 군중들의 옹호를 받게 될 것이므로 타도될가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또 타도될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건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공장, 광산, 기
 업소 및 농촌의 기층당조직의 성원과 당소조 조장들은
 정치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분자여야 하며 로동에서도 가
 장 적극적인 분자여야 한다. 《연약하고, 게으르고, 산
 만》한 현상이 각이한 정도로 존재하는 령도반즈들에 대
 해서는 상급당위의 령도하에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장기
 간 자산계급과벌성을 부리면서 여러번 교육해도 개조하
 지 않는 사람은 건결히 조동시키며 지어는 당의 기물처
 분까지 주어야 하며 혼입해들어온 개별적 나쁜분자에 대
 해서는 건결히 숙청해야 한다.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와 각항 정책을 락실하
 자면 또한 전당범위내에서 당의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
 다.

유심주의적 선협론을 비판하고 유물주의적 반영론을
 견지해야 한다. 각급 당위에서는 늘 조사연구를 진행하
 여 정황을 여실히 료해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가해야 한
 다. 실사구시적이어야 하며 좋은것만 보고하고 좋지 못한
 것은 보고하지 않는것을 반대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제창해야 한다. **한 점에 심입하여 경
 험을 얻어 전면을 추동함**으로써 진정으로 심중에 전반 국
 면이 있고 수중에 전형을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타고난 성인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령
 도간부나 만일 우에서만 돌면서 실제를 탈리한다면 사

회주의건설에 대한 지식과 재능을 절대 얻을수 없다. 경험은 간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것이며 또 경험이란 다년간의 실천을 거쳐서야 쌓을수 있는것이다. 자기의 국부적 경험을 보편적 진리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늘 총결제고하도록 주의한다면 그런 경험들은 매우 보귀한것이다. 우리는 모주석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명기해야 한다. 《어떤 영웅호걸이든지 물론하고 그의 사상, 의견, 계획, 방법은 객관세계의 반영에 불과하며 그 원료나 반제품은 인민군중의 실천속에서거나 자신의 과학적 실험속에서 온것에 불과하다. 그의 두뇌는 가공공장으로서는 완성품을 제조해내는 작용을 할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것이다. 사람의 두뇌에서 제조된 이런 완성품이 구경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것은 여전히 인민군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동지들이 이 점을 모른다면 반드시 곳곳에서 실패를 당하게 될것이다.》

군중을 탈리하고 로동을 탈리하고 관리나으리로 자처하며 특수화를 부리는 그런 나쁜 작풍을 비판하고 간고분투하는 작풍,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작풍을 발양하며 간부가 집체생산로동에 참가하는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간부가 집체생산로동에 참가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말하면 근본성을 피는 큰 일인것이다. 간부가 집체생산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광범한 로동군중을 탈리하게 되며 수정주의가 산생하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동지들은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경각성을 높이

고 당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자각적으로 집체로동에 참가하며 인민군중과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긴밀하고 가장 경상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자고자대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횡행발호하며 함부로 남을 훈계나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비판하고 겸손하고 근신하며 교만성과 조급성을 삼가하는 우량한 작품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보귀한 점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해 엄격히 해부하며 언제나 자기의 공작을 2분법으로 대하며 과감히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해야 한다. 취주는 말만 듣기 좋아하고 비평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서는 안된다. 비평만 들으면 성을 내서는 안되며 비평자에 대해 보복타격해서는 더구나 안된다. 우리의 동지들은 공작을 하자면 착오를 범하지 않을수 없다는것, 착오를 범하였으면 자아비평을 응부적으로가 아니라 참담게 진행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허위적으로가 아니라 성근하게 접수하여야 한다는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며 자기에 대한 동지들과 인민군중의 신임에 절대 손상을 주는것이 아니라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하며 자기에 대해서나 혁명사업에 대해서나 모두 해로운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착오가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에는 착오가 있으면 검토를 하며 착오를 시정하도록 허용하는 규례가 있다.》 당성을 가지고있는 모든 동지들은 이 규례에 좇아 처사하여야 한다.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작품, 인민군중과 긴밀히

런게하는 작품, 자아비평을 하는 작품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속에 수립한 우량한 공작작품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작품을 실시하였기때문에 우리 당이 **《무산계급과 혁명적 군중을 령도하여 계급의 적들과 싸울수 있는 생기발랄한 선봉대 조직》**으로 되었다. 반역자이며 매국적인 립표가 한때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우량한 작품을 함부로 파괴하였는데 일부 동지들은 확실히 이러한 파괴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의 임무는 모주석의 력차의 지시, 특히 문화대혁명이래의 유관지시에 좇아 립표의 영향을 숙청하고 당의 우량한 3대작품을 계속 보전하고 발양하는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은 국내외의 적들과의 투쟁에서 벌써 영광스러운 26년의 로정을 걸어왔다. 제국주의가 장기간 우리를 봉쇄하였고 사회제국주의가 우리를 전복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며 기회주의, 수정주의 로선의 교란과 파괴를 여러번 받았지만 전국인민은 위대한 령수 모주석을 위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그자들이 조작한 곤난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시종 무산계급혁명로선에서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되는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였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중요한 력사적 발전시기에 처해있다. 오직 우리가 모주석의 세가지 중요한 지시를 기본고리로 하고 각 부문의 정돈공작을 잘하며 독립자주, 자력갱생의 방침을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는 본세기내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할수 있을것이며 반드시 대만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정의의 사업은 그 어떤 적들도 격파할수 없는것이다.

1975년 10월 7일

(편자의 말: 등소평따위들은 근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모른다. 때문에 그자들이 인용한 혁명도사의 어록에는 잘못 인용한것과 무락이 적지 않으며 그 태도가 극히 엄숙하지 못하다. 이 책에 그것을 부록으로 실을 때 시정을 가하지 않고 원래대로 작판, 인쇄하였다. 이에 특히 설명한다.)

本书根据人民出版社1976年8月第1版北京第1次印刷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인민출판사 1976년 8월 제1판 북경 제1차 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评《论全党全国各项工作的总纲》

(朝鲜文)

民族出版社翻译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787×1092毫米 1/32 印张：31.8

1976年8月第1版

1976年8月北京第1次印刷

书号：M3049(6)279 定价：0.13元

(内部发行)

内部发行

书号M3049(6)279

定价 0.13元